

결혼과 가정

The Marriage and The Family

James W. Knox 지음
이우진 옮김



The Marriage and The Family

By James W. Knox

© 2012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결혼과 가정

지은이	James W. Knox
옮긴이	이우진
펴낸이	김영균
초판발행	2012.10.17.
초판발행	2012.9.5.
발행처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1999. 6.18. 제17-29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7층
전화	0505-856-1997
홈페이지	www.ilovekjb.com
표지디자인 · 편집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ISBN 978-89-89741-61-9

정가 10,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400주년 기념판(2012년)”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목차

- 제1장 가정의기원 _10
- 제2장 가정의 목적 _27
- 제3장 가정의 머리 _42
- 제4장 가정의 합당한 조력자 _58
- 제5장 그리스도인의 연합 _71
- 제6장 남편의 의무 _88
- 제7장 아내의 의무 _101
- 제8장 아내가 빠지는 함정 _122
- 제9장 남편이 빠지는 함정 _141
- 제10장 자녀 양육 _156
- 제11장 자녀 징계 _174
- 제12장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 _192
- 제13장 열정과 애정 _209
- 제14장 실망스런 일을 다루는 방법 _225
- 제15장 혀 _241
- 제16장 더러운 세상 속에서 정숙함 _253
- 제17장 세 겹 줄 _270



역자 서문

사회와 교회의 기초단위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루는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창 1:28). 성경은 남자의 짝이 여자이며 여자의 짝은 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 무엇도 남자나 여자의 짝이 될 수 없습니다(창 2:19-20).

교회와 가정은 유사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없으면 성경적인 가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가정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생산하여 사회의 구성원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여 주님을 위해 다음 세대를 길러내도록 하셨습니다. 남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여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인도와 아버지의 보호입니다.

가정의 또 다른 목적은 두 사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몸만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전 4:11)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식어버립니다. 혼자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엡 5:23-32, 빌 1:6).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이러한 사랑을 보고 배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정은 교육과 훈계를 받는 곳입니다(엡 6:4). 아이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무엇보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참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돈이나 물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인도자(목사와 아버지)는 이것을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삶을 통해 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남녀가 한 지붕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남자와 그리스도인 여자가, 그리스도인 부모와 그리스도인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가정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엡 5:25-33, 요일 3:16).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자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도하는 길로 아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어보실지 알아야 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같은 방식과 같은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이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화를 찾는지 배우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우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는지 배우고, 어떻게 영원을 소망하면서 사는지 배우고,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배운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 책은 열 일곱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장은 서론에 해당하고 세 장은 남편에 대한 것이며, 세 장은 아내에 대한 것이고, 세 장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며, 세 장은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두 장은 이 세상에서의 순결과 최종적인 결론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달랜드 시에서 THE BIBLE Baptist Church 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James W. Knox 형제가 설교한 The Marriage and The Family 의 내용을 요약하여 옮긴 것입니다. 책이 아닌 설교라는 특성 때문에 듣기와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어 내용 전체를 번역하지 못하고 요약했으며 많은 부분을 의역했습니다. 비록 의역하고 요약했지만, 강의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장의 끝에는 해당 장의 요약을 넣었습니다.

저자는 원고를 미리 작성하지 않고 개요만 짜 놓은 상태로 설교를 합니다. 부정확한 이야기나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게 명백한 경우에는 역자가 임의

로 수정했지만 그 외에 역자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나 확실하지 않은 것은 가능하면 저자가 말한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책은 많은 부분을 의역했습니다. 역자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 기록된 단어나 표현에 큰 의미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진리침례교회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번역한 것입니다. 2012년 여름에 이 책을 교재로 하여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는 www.ilovekjb.com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과 가정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와 역자와 독자를 신부로 부르시고 가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2년 10월

역자 이우진



제1장 가정의 기원

우리는 이번 성경공부 시리즈를 통해 결혼과 가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기원, 즉 가정(가족, family)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첫째 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8절을 보면 둘째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좋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항상 옳으며 완벽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

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창 1:26-28)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물고기와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모든 생물들보다 우월합니다. 사람은 물고기와 새와 가축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남편과 아버지가 된 인물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기적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특별한 목적 아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남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창 1:31).

하나님께서서는 특별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목적을 가지고 경이로운 창조물로 여자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도 직접 만드셨지만 남자를 만들 때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남자는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별들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태양과 달과 나무와 벌레도 모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일종의 하나님의 수제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 아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도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수제품입니다. 다만 여자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과 남자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보니 남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둘 다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창 1:28).

저는 성경에 나온 결혼과 부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

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단 한 번도 물질적인 집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집에 사느냐는 결혼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배우자보다 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코 행복한 혼인생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결혼은 소유한 재산이나 통장 잔고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결혼은 돈이나 소유한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는 오직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만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과 여자로 인해 복을 받았으며 여자는 하나님과 남자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타락 이후에 짐승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몸 어딘가에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피해 지붕이 있는 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이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담과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은 복된 결혼식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반할 만한 좋은 집과 고급 승용차와 스포츠카를 남자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랴 부르든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랴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창 2:19-20)

성경에 의하면 인간(man)의 가장 친한 친구는 결코 개가 아닙니다. 아담

은 개를 봤지만 자신의 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며 자신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담은 자신이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동물들을 보면서 자신과 평생 함께할 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여 결국 버림받은 상태로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인생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짐승과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여자는 남자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때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의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창 2:21-22)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믿으면서 인간을 만드신 방법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그 후에 그를 마취시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다른 이론과 추측이 있지만 모두 아무런 증거도 없고 누구도 입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지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23-25절)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1장에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주님께로부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아담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울 수 있도록 특별히 그를 돕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창조물인 여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창세기를 신화나 동화쯤으로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한 역사 기록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본문에 손가락을 낀 채 히브리서 13장을 펴보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히 13:4)

타락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타락 전에만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벌거벗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기초는 우주나 교회가 아닌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보시니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외의 모든 것은 변질된 것에 불과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혼인을 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거나 혹은 서로 아내를 바꾸어 관

계를 맺는 것은 모두 변질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용납하신 적이 없으며 오히려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 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일 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 관계이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롬 1:18,21,24,26-29)

성경은 인간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들은 어리석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자 인간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고 심지어 동성연애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극장과 TV에는 온갖 부도덕과 동성연애와 성적 타락을 유도하는

사상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영향을 받아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부부도 아니면서 성관계를 갖는 일이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나라를 버리실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나라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셨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TV를 틀기만 하면 증거가 쏟아져 나옵니다. 거리에만 나가도 쉽게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널려있는 모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잡지만 펼쳐봐도 증거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버림받은 상태로 내버려두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머리부터 발 끝까지 완전히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실상을 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 우리의 의의 기준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보고도 더 이상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행을 더 이상 음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더 이상 이슈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하는 것을 TV 드라마에서 버젓이 보여줘도 부모들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자녀들과 즐겁게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그저 드라마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변명한다 해도 그것은 음행일 뿐입니다. 그저 연기일 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음행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버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비취주시는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며 어둠 속에, 그것도 아주 짙은 암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도 거의 없습

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타락해서 설교자들조차도 진리를 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순결하지 않은 처녀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결한 처녀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전에 우리나라를 버리셨습니다. 오늘날은 중학생들도 성관계를 갖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결혼한 부부가 아니면서 성관계를 갖는 게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건 간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인 결과 사람들은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완전히 쫓아내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면 간음을 하려고 벌거벗었을 때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대신 TV를 섬겼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도 TV를 보고, 점심에도 TV를 보고, 저녁에도 TV를 보고, 아이들이나 부모나 모두 TV를 봅니다. TV는 음행과 간음을 조장합니다. 그러한 짓이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밉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 대신 TV의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창 5:1-2)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아버지의 성(family name)을 따릅니다. 어떤 여자들은 이것을 거부하며 자신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겠다고 합니

다. 하지만 어머니의 성도 할아버지(남자)의 성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남자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팽배합니다. “spokesman(대변인)”이라고 하지 말고 “spokesperson”이라고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son”이라는 남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human”이라는 단어에도 “man”이라는 남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성경의 진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담이 무슨 권리를 내세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개념은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만들어 낸 것일 뿐입니다.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 아담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복수) 한 사람(단수)의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들은 한 몸이 되어 하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복수)을 아담(단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막 10:2)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미 진리

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한다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실행되는 곳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누구도 억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주

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롬 1:18). 그들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어라 명령하였느냐? 하시거늘”**(3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모세를 대적한다고 트집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구약성경과 배치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퍽하므로 그가 너희에게 이 혼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4-6절)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5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모 두 명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룸메이트를 만드신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칭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진리를 오래 전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래 전에 우리나라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7절)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의 배우자는 아내이지 엄마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혼인시키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 주는 것처럼 신랑의 어머니도 신랑을 신부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8-9절) 우리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여 있는 자거나 자유로운 자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부부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혼한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각자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8-9에서 말씀하신 의미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끈으로 묶으시고 나서 아무도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시 9:17)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 되었나니”(롬 1:18)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대통령과 부통령과 주지사들과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선출한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들도 성경을 믿지 않고 교사들도 성경을 믿지 않고 엄마도 성경을 믿지

않고 아빠도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1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 하는 자요,”(21,24,26,28,29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행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룹니다. 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평안한 가정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행을 다니고 쇼핑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만드는 총감독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엡 5:30)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뼈와 살이 서로 들러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31절) 예수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한 몸으로 결합하였듯이 남편과 아내도 한 몸으로 결합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32절)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로 연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듯이 교회가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회가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귀는 성경적인 결혼의 개념과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세우기 4천 년 전에 이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사회는 가정이라는 기초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유사합니다. 가정을 보면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파괴되고 깨지고 변질되었다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나라의 가정을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기쁨과 놀라움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네가 아내에게서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전 7:25-27)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이혼한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장기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28절) 혼인생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결혼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구원받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29-33절)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힘과 시간과 능력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작정했다면 대단히 잘 한 일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능력과 금전을 들여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훌륭한 생각입니다. 배우자로 인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딤후 4:1-3)

성경에 의하면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독신을 지켜야만 한다는 주장은 마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혼인을

교회와 가정은 유사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없으면 성경적인 결혼관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이 변질되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고 어머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이혼한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고전 7:25-27). 독신으로 지내며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훌륭한 생각입니다(고전 7:29-33). 결혼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을 금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딤후 4:1-3).



제2장 가정의 목적

오늘은 가정의 목적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인종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인간 사회의 기초석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정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창 1:26-28)

성경을 주의 깊게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남편과 아내로

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로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가정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녀를 생산하므로 사회의 기본 골조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 사회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사회가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함께 가정을 이뤄 아이를 낳고 양육하여 주님을 위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와 골조를 이루는 일에 대한 책임은 사회나 국가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에 있습니다. 오직 가정만이 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룬 가정만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과 사회에 합당한 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남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여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인도와 아버지의 보호입니다. 범죄와 폭력과 성도착과 타락의 증가의 원인은 사회의 기초적인 가정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정의 첫째 목적은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고 길러내는 것입니다. 사회는 재물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오락 위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 위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 생활과 관계가 깊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삶은 교회와 별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고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결혼이 존중 받

아야 합니다.

아이만 구원받고 부모가 구원받지 않은 경우 아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보화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뒤에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행을 일삼는 불경건한 아들들을 둔 악한 제사장 밑에서 살았지만 한나라는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있습니다. 정치나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속한 가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회를 지탱해 주는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가정이 존중 받아야 합니다.

가정의 둘째 목적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들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 줄은 빨리 끊어

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7-12)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힘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고 혼자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혼자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고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자신을 위해 웃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플 때 간호해 주고 돌봐주고 보살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혼자 웃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웃는 게 더 즐겁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혼자서는 따뜻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합니다. 혼자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마귀가 맹렬하게 공격할 때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혼자가 아니라 지지해주고 힘을 주고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니까? 낙심했을 때 일으켜주고 동행하고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가정의 목적은 두 사람이 함께 하고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가정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셋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이와 같이 남자들이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23-25, 28-29, 32)

우리는 위대하신 구원자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으며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이러한 사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화나 동화쯤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주위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화나 만화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사랑을 아이들이 가정에서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맞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이해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랑으로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은 가정을 통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그는 교회에 가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부모를 통해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랐다면,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기쁨으로 섬기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규칙과 법규와 율법과 명령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살아 있는 예화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내분들, 여러분은 교회

처럼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설교자나 주일학교 교사의 일은 매우 쉬워질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를 둔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자녀라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가정의 넷째 목적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빌 1:6)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 출생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자녀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사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절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정은 무한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 양육과 징계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과 반대가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사랑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혀 사랑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의 자녀가 된 후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는 않으실지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쫓지는 않으실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준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거나 버리고 집을 나가 버립니다.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도 있고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 아래 성장한 사람들은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안전과 위로와 확신과 평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가정에 속해 있음으로 자신이 사랑 받는 존재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여러분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경적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의 목적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바른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옳은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

기도 쉬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른 교회라면 그 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에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 사랑과 희생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한다 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가족이든 아니든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습니다.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데에는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기분을 좋게 하면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교회입니다. 희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만 찾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까?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아버지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희생과 사랑을 전혀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성장해서, 구원받는다 해도 여전히 희생과 사랑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의 다섯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롬 5:5)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이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모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운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운다면,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더욱 성장하고 장성해진다면 여러분은 먼 곳으로 가셔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가정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친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가정이라는 학교를 통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밤새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배운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지체들을 위해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각자 따로 식사하고 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데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을 하고 탈선을 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마약상이나 나쁜 친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가정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운 사랑이라고는 고작 대중가수가 노래하는 것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인터넷에 나오는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TV나 극장이나 인터넷이 가르쳐주는 거짓 사랑에 속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정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목도하는 온갖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사랑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여섯째 목적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보호하고 교육하고 징계하라”는 것입니다.²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의존적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보호와 교육과 훈련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가정이 안전한 장소이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은 배신으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아내는 속임수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가정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교육과 훈계를 받는 곳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의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² 우리말 성경에서 “교육”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nurture입니다. 이 단어는 킹제임스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옵니다. 저자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호(protection)”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훈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admonition이며 저자는 이 단어를 “교육(education)”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주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여자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인도와 아버지의 보호입니다.

가정의 둘째 목적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함으로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전 4:7-12). 가정의 목적은 두 사람이 함께 하고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수고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야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위로해 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보살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혼자 있으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혼자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셋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엡 5:23-32).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이러한 사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넷째 목적은 무한한 사랑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빌 1:6).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절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는 않으실지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내쫓지는 않으실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 준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여러분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경적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의 목적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가정의 다섯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롬 5:5). 만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운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운다면,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가정이라는 학교를 통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의 여섯째 목적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함입니다(엡 6:4). 가정은 교육과 훈계를 받는 곳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의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교육과 보호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배운 사람은 교회에서 그러한 것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가정에서 섬김만 받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3장 가정의 머리

오늘은 주로 형제님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설교자가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남편과 아버지들이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모든 남편과 아버지들이 따라야 할 지침입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딤후 3:1-7)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다스리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정은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이러한 원칙을 먼저 가정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덕목들은 단순히 교회의 인도자만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인도자도 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천 년 동안 지상에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에 기쁨과 평화와 번영과 행복과 축제와 풍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년간 통치하실 때 법에 대한 복종만을 강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통치자(다스리는 사람)로 삼았습니다. 요셉의 책임은 이집트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강력한 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며 복종시켰던 게 아닙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다스리는 자로 삼은 것은 모든 이집트인들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돌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돌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모임만 돌보도록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집도 돌보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은 가정을 다스리는 자이며 돌보는 자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니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정을 위한 규칙과 명령과 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누군가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것을 준행하고 이것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도자의 말에 권위를 두라고 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정의 인도자의 말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감독은 교회에서 스스로 법이나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인도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돕는 일을 합니다. 지역교회의 인도자의 자격을 가장 잘 시험할 수 있는 무대는 가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은 감독이 보다 큰 무리(교회)를 감독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법으로 작은 무리(가정)를 감독합니다. 남편은 가정을 인도하고 공급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돌봐줍니다.

교회와 가정은 유사합니다. 교회의 인도자가 하는 일을 통해 가정의 인도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 받을 것이 없다(blameless)”는 말은 비난 받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을 게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교회의 감독이 잘못된 영과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 모두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므로 따르는 무리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인도자의 또 다른 덕목으로 깨어 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수꾼이 깨어서 파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나 그 무엇이 접근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파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인도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과 영적인 삶이 깨어 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가정의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을 인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네다섯 명의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 한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들이 제대로 육을 할 수 있게 가르치러 왔습니다. 당신의 딸들이 거의 벌거벗고 다니게

하고 당신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고 세상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하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왔습니다. 제가 집에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아버지라면 문을 닫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장 여기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소.”

그런데 이렇게 불청객을 쫓아버리고는 거실로 와서는 아이들과 함께 TV를 봅니다. 그리고는 방금 쫓아버린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것을 TV가 대신 하도록 허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직접 와서 자녀들을 망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지만 TV를 통해 자녀들을 망치는 것은 허락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간음하고 수다 떨기만을 좋아하는 여자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인도자가 그러한 것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여러분은 분노할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가정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인도자가 깨어서 온갖 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처럼 가정의 인도자도 그러해야 합니다.

목사가 다음과 같이 광고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번 주 오전 설교시간에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간음을 조장하며 문란한 성적 생활을 하는 여자를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여자처럼 될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 여자의 설교는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여자에게서는 그 무엇도 배우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교회의 인도자가 그러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자신이 인도하는 회중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면 안 된다면, 가정의 인도자도 자신의 회중(가족)이 쇼파에 앉아서 그러한 영향을 받게 해서 안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진 것은 악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가정에 들어오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

다고 해서 이혼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번도 그러한 것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메시지를 가정에 선포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남자는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며 이 일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정에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감독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맑은 정신(sober)”이라고 하면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맑은 정신은 술 취함의 반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맑은 정신이라는 말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통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자기 통제를 잃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제력을 잃는 경우는 술 취함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위와 말에 통제력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이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과 생각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맑은 정신을 가지지 못한 때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항상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나 아이들을 통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모든 순간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즉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교회의 인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점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화를 내도 죄를 짓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엡 4:26)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면서 자기 통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적이 많지만 죄를 지은 적은 없으십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화를 내면서 욱하고 폭행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십니다. 이것은 화를 내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정을 인도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신 자신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감독의 자격을 열거하면서 “행실이 바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바르게 행동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행실보다는 교회에서의 행실이 항상 더 나을 겁니다. 직장에서의 행실과 가정에서의 행실을 비교해 보면 항상 직장에서의 행실이 더 나을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자신을 위해 음식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이를 키워주는 사람에게 밖에서보다 더 좋은 행실을 보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왔더니 감독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가 감독의 자격이 있기는커녕 구원받았는지도 의심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인도자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독의 자격에 열거된 것들은 가정에서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른 자매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폭언을 하면서 교회에서 다른 자매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직장

상사를 공손히 대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직장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만큼은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상점의 계산대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친절하게 말할 줄 안다면 여러분을 위해 요리를 하고 더러운 속옷을 빨아주는 아내에게는 더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매님들은 아마 이 성경공부 내용이 훌륭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 열거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given to hospitality)**”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영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병이 들면 병원(hospital)에 갑니다. 병원이 상처를 치료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받고 병들었는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돌봐주고 간호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hospitality)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는 척하지만 집에 와서는 가족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 됩니다. 가정이야말로 사랑과 섬김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할 장소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의사처럼 간호사처럼 다가와 돌봐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감독의 자격 중 하나로 “**가르치는 재능**”을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명령만을 하려고 합니다. 꾸짖고 책망만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항상 인내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친절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오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은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은 술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에게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자기를 술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술을 자신에게 주는(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술에 내준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술에 내주면 술이 주인(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술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이 제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술에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자신을 주관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목사가 교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술을 마시는 가정은 가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술 얘기만 나오면 항상 예수님도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³ 이런 구절만 기억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³ 성경에 나오는 wine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포도즙이 발효되어야 포도주가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술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자의 <성경과 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역주

들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 라는 말씀은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행 4:37) 라는 말씀은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술에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을 술에 내주니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인도자가 술을 마시는 게 합당하지 않다면 가정의 인도자도 술을 마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no striker)” 아내나 아이들을 폭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파업(strike)을 합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인도하는 일이 항상 이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일하고 수고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우를 바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한다면 지치지 않고 계속 수고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는 회중이 적절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파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이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만 둘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항상 기대한 대로 돌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어떤 희생을 하는지 알지 못하다가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게 되고 나서야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strike(구타, 파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⁴ 일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정의 인도자로서 가정을 인도하는 일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감독의 또 다른 자격으로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참된 행복과 만족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월급을 인상해 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든지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자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월급이나 이 세상에서의 번영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행복이 돈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인간관계는 돈이나 소유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돈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내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내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내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법을 배우도록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로 대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내로 대해야 하며 이러한 일은 가정에서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아내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⁴ strike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흥정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구타도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현대 영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파업도 될 수 있습니다. -역주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 으박지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지도자에게 순종하거나 따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가정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결혼하고는 싶어하지만 결혼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마치 청소년들이 멋진 자동차를 보면 갖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다면 차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소리지르고 으박지르거나 발로 벽을 차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의 인도자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모습을 보면 간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다투는 것을 이웃이 보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가정은 남편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절반만 하나님이고 절반은 인간이신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인간이신 것처럼 가정은 온전히 남편의 것이고 온전히 아내의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업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4절) 다스릴 권한이 있는 사람은 돌볼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가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 제대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없다면 가족이 여러분에게 복종한다 해도 비참함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위한 법을 만드시고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

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참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시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록음을 좋아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귀가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것을 즐긴다는 말씀도 성경에 없습니다. 마귀가 술 취해서 뺨었다는 얘기도 성경에 없습니다. 마귀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인간이나 천사나 하늘이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킹제임스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훌륭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망쳐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에 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른 옷차림을 하고 바른 머리 모양을 하고 바른 성경을 읽고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마귀만큼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던 왕좌를 탐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왕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와 같은 착각을 한다면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 생활은 휴거와 재림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음모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간증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여성이 여러분이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이성적인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알게 하십시오. 이것이 가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간증입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책망 받을 것이 없고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술에 내주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교만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러한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뒤쪽에 남편과 아내가 나란히 앉아있었는데 아내는 팔로 남편의 허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제와 인내에 대해 설교하면서 사람이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람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이야기 할 때마다 여자는 남편의 허리를 돌렸던 손을 남편의 머리 위로 들어서 남편은 볼 수 없게 손가락으로 자신의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인내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대해 얘기할 때도 그녀는 남편 몰래 손으로 남편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자 그녀의 남편이 인내력이 부족한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아내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to hospitality)”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병들었는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돌봐주고 간호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hospitality)입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명령만을 하려고 합니다. 꾸짖고 책망만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인도자가 술을 마시는 게 합당하지 않다면 가정의 인도자도 술을 마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같기 때문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no striker)” 아내나 아이들을 폭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strike(구타, 파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정의 인도자로서 가정을 인도하는 일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참된 행복과 만족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인도자는 이것을 삶을 통해 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내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내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로 대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내로 대해야 하며 이러한 일은 가정에서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인도자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모습을 보면 간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다투는 것을 이웃이 보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남편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은 온전히 남편의 것이고 온전히 아내의 것입니다.

다스릴 권한이 있는 사람은 돌볼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가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인간이나 천사나 하늘이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던 왕좌를 탐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왕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와 같은 착각을 한다면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간증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여성이 여러분이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간증입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4장 가정의 합당한 조력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정의 머리로서의 남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합당한 조력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는 가정의 머리로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합당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잠언 3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잠 31:10) 성경은 현숙한 여인을 찾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찾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갑에 든 돈이나 은행 잔고에만 신경 쓰는 형제님이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어디서든 벌 수 있지만 현숙한 여인은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또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뭇을 정하여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힘 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물레 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그녀는 고운 아

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능력과 명예로 웃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 하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 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이다.”(11-31절)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인은 전혀 게으르지 않습니다. 둘째, 이 여인은 많은 것을 성취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남편을 위협하거나 주눅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여자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마치 남편에게 대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여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자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 없습니다.

잠언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인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했고 부지런했으며 열심히 일했지만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에 복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두 극단이 존재합니다. 여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를 제치고 가정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경건한 여자가 경건한 삶

을 살면 경건한 남편과 경건한 자녀들이 그녀를 칭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이곳 딜랜드에서 자넷 리노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회활동으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그녀가 본받아야 할 여성의 표상이라고 떠들고 치켜세웠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녀는 파킨슨씨병 초기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세 사회적인 영향력과 명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혼자만 남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녀를 사랑해 주셔서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병에 걸린 여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여성 단체나 정부에서 주는 트로피가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고 돌봐 줄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손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가치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다리가 아닌 세상의 사다리를 오르는 일은 위험합니다. 특히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위험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건 얼마나 유명해 지건 이 세상은 여러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세상은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성공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상적인 여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11절을 보면 그녀는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남자와 무슨 일을 벌일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

니다. 이런 여자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전화하는지 휴대전화를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여자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일에 관한 것이거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단 한 순간이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의심할 만한 일을 해서 안 됩니다. 다른 남자를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품지도 않는 온전히 신뢰할 만한 아내를 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저는 간음은 살인보다 더 끔찍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간음은 배우자에게 어떠한 외적인 상처를 주지 않고도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가장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있어서 신실하십시오. 말에 있어서 신실하십시오. 행동에 있어서 신실하십시오. 남편이나 아내가 의심할 만한 일은 단 하나라도 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고 썩었고 거짓말을 한다 해도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편에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가 최고의 상태에 있는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남편이 잘나가고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만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 생활을 오래 지속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지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에게 한번 잘 대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 평생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남편이 훌륭하게 행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상적인 여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기분이 변할

수는 있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목사나 성도나 친구나 가족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인내와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선하게 대하는 여자를 찾아내는 남자는 루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찾아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이것과 정확히 반대에 있는 여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5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에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니”(딤후 5:11-13)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덕이 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여자들이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고 상처를 주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서는 무엇인가를 하며 바쁘게 사는 여자가 소중한 여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며 바쁘게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세워주고 유익을 주는 일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14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상인들의 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이것은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고 먼 곳에 가서 사온다는 게 아닙니다. 상인들의 배가 물건을 가득 싣고 오듯이 현숙한 여인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현숙한 여인은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줍니다. 가족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 납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바쁘게 보냅니다. 물론 남편이 이러한 것을 돕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집안 일을 돕는다고 해서 큰해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며 수고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심지어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새로운 교리처럼 들릴 겁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모든 가정 경제에 관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 경제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해도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가정 경제와 관련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형제님들은 아내가 잘 할 수 있다면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남자를 돕기 위해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남편 혼자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내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가정의 모

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힘 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17절) 현숙한 여인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허송세월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비교해서 더 약한 그릇인 것은 맞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지는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팔을 강하게 합니다. 옆에 아내가 있는 형제님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속으로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음날로 미루지 않습니다. 등잔불을 켜고서라도 가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낮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낮에 하고 밤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밤에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합니다.

19절은 옛날에 사용하던 재봉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 손을 물레 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지금 현숙한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돕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직장에 다녀야지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의복을 제대로 수선할 수 있으면 그것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잘 고치고 수리하고 수선할 수 있으면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구매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구매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전세계 90%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발과 의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 어느 시대에도 누리지 못한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50% 할인하는 것을 구매하면 50%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

르지만 집에 있으면 100%를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옷과 가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줍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21-22절)** 단정한 옷차림을 하지만 전혀 단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단정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아미쉬⁵처럼 하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이 주홍색과 자주색과 비단으로 된 옷을 입게 했습니다. 아미쉬처럼 검정색 치마만 입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품위 있고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있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23절) 만일 여러분에게 다른 남자들이 바라는 아내가 있다면, 다른 형

⁵ 아미쉬(Amish)는 유럽에서 핏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와 18세기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에 거주하는 기독교 종파입니다. 이들은 21세기에도 18세기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미쉬 마을은 우리나라로 치면 민속촌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역주

제들도 여러분의 아내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24절)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아마포와 허리띠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독립침례교회에는 여자는 오직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라.”(25절) 자매님들, 여기서는 세상적인 것이나, 불경건한 것이나, 남편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여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 여자가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사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26절) 성경은 여자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의 아내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의 아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은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생활을 가르쳐줄 선생은 TV 드라마나 주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니” 성경은 각자 일을 해서 자기 자신의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살후 3:12)

28절입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 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들과 남편은 인정할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자녀들과 남편에게 좋은 간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29-30절)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이다.”(31절) 잠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일에 따라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남께 드린 대로 받을 것입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은 쓴뿌리와 미움과 다툼과 경쟁과 증오와 불친절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코 사랑과 칭찬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혼인 생활은 결코 그러한 씨앗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절과 사랑과 은혜와 동정과 자비와 진실함의 씨앗을 심는다면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후에는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게 아니라 상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이 현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현숙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남편이라도 사랑과 친절로 대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과 친절과 인내로 대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정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 중 한 쪽만이라도 현숙한 사람이 있었다면 가정이 망가져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른 것을 행하십시오. 학교나 회사나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바르게 행하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이 이상적인 남편상이었다면 잠언 31장은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주위에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은 원한다면

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팔을 강하게 합니다(17절).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음날로 미루지 않습니다(18절).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돕습니다(19절). 현숙한 여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줍니다(20절). 현숙한 여인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5절).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사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의 아내가 볼 수도 있습니다(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현숙한 여인은 사람들의 칭찬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도 받게 될 것입니다(29-30절).

여러분의 남편이 현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현숙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남편이라도 사랑과 친절로 대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31절).



제5장 그리스도인의 연합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두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남녀가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 남자와 그리스도인 여자가, 그리스도인 부모와 그리스도인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의 앞부분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4-5)

지역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동성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금방 타올랐다가 식어버리고 커졌다가 시들어버립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불변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구속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열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찢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튀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벧후 2:20-22)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의 본성은 개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돼지의 본성도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개와 돼지 같은 본성을 제어하시면 개와 같은 행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나오고, 돼지와 같은 행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남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그만두고, 구원

받은 여자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그만두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사라지고 개와 돼지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때까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단지 구원받은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남녀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처럼 살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롬 8:6-7)

어떤 마을에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길 건너에도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교회에 가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두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쪽 집에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다른 쪽 집에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차이 외에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죽어서 가는 곳만 다를 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쪽 집에 사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처럼 다른 쪽 집에 사는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삽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에 구원받았다 해도 옷이나 돈이나 자동차나 여행이나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구원받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훌륭한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참된 삶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구원받고 남편도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자매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지 않은 여자들이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여자든 구원받지 않은 여자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남자와 구원받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 인답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이 오 년이나 십 년 동안만 유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부가 양쪽 모두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적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셔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고개를 드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이,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엡 5:25)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과 본성을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26-2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 값으로 신부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어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영광스럽게 되고 완전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원 외에도 수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헤아려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게 해 주신 일에 일일이 감사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사용한다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교회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친절과 은혜와 긍휼로 교회를 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교회는 더 나아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선을 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아 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28-30절)**

성경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항상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사랑은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행할 때에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만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만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

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전혀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연애편지를 보내셨지만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을 때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떻게 변치 않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서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기 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얘기하며 더 이상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처럼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육신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육

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소
중히 여기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도 여러분의 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
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31-33절)

성령님께서 왜 “너희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에베
소서 5장의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자
신은 그럴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
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은 그러한 변명을 할 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너희 각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남편이나 아내도 사랑할 수 있습니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입니다.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는 두 사람은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다면 그들의 관계는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부
부가 싸움을 하고 관계를 끝내려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
입니다.

결혼생활에는 상처와 눈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
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상황을 대면한다면 한계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처럼 남용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TV나 라디오를 틀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고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안녕을 포기했고 여러분의 영원한 만족을 위해 자신의 일시적인 만족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참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나, TV에 나오는 영화나, 서점에 있는 연애소설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의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녀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구원받고 결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

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 5:6-8)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남편을 사랑했지만 남편이 죄를 지었고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가 경건치 않은 짓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충실해야 하고 남편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고 죄를 지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런 소망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 주실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상처를 입을 만한 일을 하나라도 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을 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길로 걷고 있습니까? 육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빌미로 감정을 파국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대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여러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 3:18)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양쪽이 있습니다. 한쪽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한쪽은 불의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의로우신 분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분의 고난으로 인해 불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이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자매님들, 여러분이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해 주면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 줘야 된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이 만족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으로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신이 받을 것을 바라고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고 줍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절반은 인간의 끔찍한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롬 1:18-32). 그러나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롬 2:4). 온갖 죄를 짓고 온갖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춰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위에 죄를 더하고 하나님을 더욱 모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햇빛을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분의 눈앞에서 가증한 짓을 하고 그분을 저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사랑만으로 가정 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화가 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배우자에 대해 실망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생기는 그 모든 날에 여러분의 사랑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마 13:45-46)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와 그곳에 있는 왕좌와 모든 영광을 떠나 이 세상으로 오셔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경을 포기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

려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매우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혹은 상대방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기로 하는 사랑은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혼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단 한 번도 구원의 목적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령은 단 한 번도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초점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딤후 2:13)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둘러보면서 그곳에 있는 건물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 다. 그는 그곳을 장식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 다. 그는 왕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어린양께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양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사진을 찍거나 하늘나라의 사진을 찍고 있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 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의 관계이기 때문입니 다.

주님께서서는 지금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 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하

나눔이 아닌 돈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이란 아닌 물질적인 번영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이란 아닌 ‘야베스의 기도’나 과부의 재물을 삼키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건강과 자신의 육신의 안락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동일한 것을 배우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과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해,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나 집이나 부동산이나 가구나 의복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일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공휴미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빌 2:1-8)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지만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수건을 걸치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 앞에 앉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그저 하늘나라의 왕좌에 앉아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러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하늘의 왕좌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었을 때에 의로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값진 진주를 사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나 혼자인 분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육신 안에서 걷지 말고 성령 안에서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앞으로 걸어갈 모든 인생 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앞으로 걸어갈 모든 인생 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제6장 남편의 의무

제 앞에는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하시는 12가지 명령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12가지 명령의 목록도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12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레이디즈 퍼스트(숙녀 먼저)”라고 하지만 오늘은 남편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네 군데에서 남편에게 12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엡 5:22-23)

여기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첫째 명령이 나옵니다. 남편은 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게을러서는 안 되며 부지런하게 관심을 갖고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가정을 돌보고 책임질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봐야 하고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가정의 머리이며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돌보시듯이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남편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가족을 위해 바른 본을 보여야 하며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머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제대로 머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몸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머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이라면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직함은 좋아하지만 그 직함에 맞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권위는 좋아하지만 책임은 싫어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이기 때문에 남편을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농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아닙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어 가정이라는 배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엡 5:25)

남편에게 하시는 둘째 명령은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온전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인내로 여러분을 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자비롭게 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 받을 자격이 있을 때에만 사랑하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사랑하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내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게 있을 때만 아내

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26-27절)**

성경은 남편에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아내를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정결한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이 세상의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아내를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건전하고 거룩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 세상의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듯이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아내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쓰레기 같은 것을 듣고 쓰레기 같은 것을 보지 않도록 남편은 영적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내가 영적이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헌신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

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28-30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것처럼 아내에게 돈을 쓰면 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돌보면 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기 바라는 대로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기를 원하는 대로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31절)**

남자는 어머니를 떠나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선하게 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어머니와 결혼한 게 아니라 아내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고 싶다면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그런 험담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 부모님에게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아내에 대한 험담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들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을 택하십시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들에게 아내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은 아내와의 관계에 해가 될 뿐입니다.

결혼한 형제님들,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지 무너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아내에 대해 험담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 몸이 되어 살아야 할 존재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성경은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시대는 진정한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변명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중 매체는 사람들의 죄를 지지해주고 그것을 정당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말씀합니다.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고 상상으로도 그렇게 하고 말과 행위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TV나 영화에서 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와 다른 이교의 우상숭배자들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아내로 맞으셨습니다(이사야서 54장과 호세아서 참고).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아무런 선도 행하지 않았습다. 우상숭배를 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급기야 창녀 짓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혼증서를 써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신 뒤에도 다른 여자와 혼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내로서 합당치 않을 때에도 집으로 다시 돌아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인지 불평합니다. 왜 아내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지 이야기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각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남편에게 주시는 일곱째 명령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골 3:19)

형제님들, 아내 때문에 인생을 낭비한 게 아닙니다. 결혼생활이 엉망이 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결혼하자고 아내에게 조르고 하나님께 조르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쓸데없는데 돈을 허비해 버립니다. 따라서 결혼해서 돈을 마음대로 못쓰게 되었다고 해서 손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결코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 이유는 결코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해도 아내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다 해도 여전히 존재했을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무엇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는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창 3:12).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여자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5:14). 아담이 죄를 지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지 아내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는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화풀이하지 마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벧전 3:7)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니라 마귀가 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혼식에서 서약한 것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혼식 비디오를 촬영하고 나서 한 번도 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주 보시며 우리가 서약한 것을 상기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혼식에서 한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아홉째 명령은 아내와 함께 지식 가운데 거

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남자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로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마귀가 공격하는 면도 다릅니다. 마귀는 TV 드라마나 잡지를 통해서 여자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TV 드라마나 잡지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여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해야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아내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아내가 어느 부분에 약하고 어느 부분에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마귀가 어떻게 아내를 무너뜨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려면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빵을 만들거나 식당에서 일하려고 해도 대학 나온 사람을 선호합니다. 직업을 위해 이십 년 가까이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됩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교육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가정 생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워야 합니다. 가정 생활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정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상사를 대할 때처럼 존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재판장을 대하듯 존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얻기 위해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을 대하듯 존중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를 존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음식을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존중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존중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식사하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빨래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회를 내고 불평을 하는 남자는 있어도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고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감사하는 남자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아내가 할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합니다. 남자가 직장에서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존중 받습니다. 목사도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존중 받습니다. 따라서 아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존중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존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내를 존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누군가를 고용해서 빨래를 하게 하거나 청소를 하게 하거나 요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오직 아내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돈을 주고 어떤 일을 시켜도 잘못된 게 없지만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일은 예외가 됩니다. 그

일은 오직 아내와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해줄 여자를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안전과 보호와 미래를 위해 결혼합니다. 남자와는 좀 다른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들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7:1-5)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신 열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대하시듯 합당한 애정과 친절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열한째는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남편의 몸에 대한 아내의 권리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는 모두 잠자리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남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편과 아내는 부부싸움을 할 때 잠자리를 무기로 상

대방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남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가 지도록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와 가정을 망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성경은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라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믿지 않는 아내와 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순수하게 지켜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함께 지식을 따라 사십시오.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체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십시오.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명령들은 단순합니다. 물론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명령들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이 되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요 약

성경은 네 군데에서 남편에게 12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남편에게 하시는 첫째 명령은 가정의 머리가 되라는 것입니다(엡 5:22-23).

남편에게 주시는 둘째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엡 5:25).

남편에게 주시는 셋째 명령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엡 5:26-27).

남편에게 주시는 넷째 명령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라는 것입니다(엡 5:28-30).

남편에게 주시는 다섯째 명령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엡 5:31).

남편에게 주시는 여섯째 명령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엡 5:33).

남편에게 주시는 일곱째 명령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골 3:19).

남편에게 주시는 여덟째 명령은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벧전 3:7). 합당한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아홉째 명령은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래야 남편의 기도가 방해 받지 않고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벧전 3:7).

남편에게 하신 열째 명령은 합당한 애정과 친절로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고전 7:3).

남편에게 하신 열한째 명령은 남편의 몸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고전 7:4-5).

남편에게 하신 열두째 명령은 믿지 않는 아내라고 해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고전 7:12).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명령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명령을 지키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이 되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제7장 아내의 의무

오늘 제가 전하려는 것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내용은 용기 있는 형제님들만이 “아멘” 할 겁니다. 시편 33편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시 33:4) 잠언 3장도 보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잠 3:5-7)

오늘 우리는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십 년 전에도 전했고 이십 년 전에도 전했습니다. 주제도 같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같지만 그때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마 요즘 여자들은 성경이 아내와 어머니와 여자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너무나도 생소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고 TV를 통해 도덕적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여성을 증오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이며 편협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원시인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이든 질문하라고 하면 대부분 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신은 왜 동성연애자들을 증오하는가?”이며 둘째는 “당신은 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항상 옳은 주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줌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면 여러분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에게서 듣는 게 좋습니다.

백 년 전에는 남자는 남자였고 여자는 여자였으며 남자는 가정의 머리였고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에는 어느 교회에 가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정신병원이 많지 않았고 이혼율도 높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⁶ 그런데 지금은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무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가능한 경우에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이 주님께 순종할 때에만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무엇을 얻어낼 것이 있을 때에만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물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엡 5:22)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느 지역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마침 경찰이 와서 “여기는 법에서 정한 주차금지 지역이니 주차하지 마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곳에 주차를 했다면, 여

⁶ 저자는 지금 백년 전 미국 사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역주

리분은 단순하게 경찰관의 권위에 도전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 즉 국가의 법에 도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단순하게 남편의 권위에만 도전한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법을 만드신 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단순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므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존중한다면 주님의 말씀도 존중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복종은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등한 분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으며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아내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같은 남편이나 남

편 같은 아내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건물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 설계한 사람보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운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일을 할 뿐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게 아닙니다.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 설계한 사람의 지시를 따른다고 해서 그보다 열등한 게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으면 둘 다 같은 성령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열등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마치 설계하는 사람과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계시듯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와 인도 아래 있습니다. 남편이 가면 아내가 따라 가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는데 남편이 가는 길을 아내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산길을 다녔습니다. 항상 제가 앞장서서 갔고 친구는 뒤따라 왔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저에게 왜 항상 당신이 앞장서서 갔느냐고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가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산길을 다니다 보면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거미줄에 걸리게 되거나 진흙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인도하여 앞장서서 가는 게 항상 재미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투를 할 때에도 누군가는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앞장서서 간다는 것이 항상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따라 가는 게 안전을 보장받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

누군가 따라가고 인도해 줄 사람을 주셨다는 게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몇 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아마 남자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더 빨리 죽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남녀평등에 대해 부르짖는 사람치고 무슬림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중국에 가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국가에 가서 남녀평등을 주장했다가는 몰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국가에 가서 자신은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당장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뒤돌아보면 성경을 믿는 남자들이 있는 지역 외에는 어디에서도 여자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손해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몰몬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 같은 종교에서는 여자는 성적 노예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자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제대로 대우해 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리아나 루디아는 기도 모임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여자는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성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성으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내들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 인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가정에서는 남자가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연애자가 되는 남자 아이들은 여자가 가장인 집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가정의 인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

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바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됴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주님께서 아내에게 하시는 첫째 명령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명령은 남편이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누군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보다 똑똑한 여자는 많습니다. 남자보다 더 강한 여자도 많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 위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교회 위에 계시고, 남편은 가정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시편 33편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옳다고 믿습니다. 잠언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매님들 중에는 남편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잘못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아내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아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변명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제 말이나 남편의 말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는 단순히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종한다는 게 무엇인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아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내들도 어떤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아내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남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항상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어느 교회에 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에 관해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남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모든 일에서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

니라.” 이것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때로는 아내를 사랑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때로는 남편을 존경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내를 사랑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남편을 존경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명령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남편을 존경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 아내에게 존경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자매님들이 지금 현재의 남편을 존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잘 압니다. 특히 이런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남편을 존경하기란 더욱 어려울 겁니다. 결혼해서 십 년 이상 함께 산 남편을 존경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성령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성령님께서 남자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그를 주관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나와 평생을 함께 살기로 결정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내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여자들은 남편을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할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내를 본다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남편을 본다면 남편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 모두보다 뛰어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는 아름다움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루시퍼와 비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존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마음이 그를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영적 선물들을 자매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선택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남편의 장점을 보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댈지 해도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머리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불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머리가 아니라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배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백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억울해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

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존경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내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 설교할 때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만 복종하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저도 주님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만 복종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또한 복종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남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은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제 인생의 법칙을 정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는 명령에 관한 게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as it is fit in the Lord).”**(골 3:18)

대부분의 유아실에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아마 원기둥과 사각기둥과 삼각기둥이 있고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판이 있는 유아용 장난감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원기둥은 원모양의 구멍에 넣어야 들어갑니다. 아무리 삼각기둥을 원모양 구멍에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아기들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삼각기둥을 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삼각기둥을 발로 차고 급기야 울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을 내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원기둥은 원모양의 구멍에만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각기둥은 삼각형 모양에만 들어맞습니다.

여권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하고 싶은 주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든 거리에서 행진을 하든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결코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원기둥이 원모양의 구멍에만 딱 들어맞듯이 그렇게 들어맞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딱 들어맞지(fit)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 누구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인정하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만 인생이 제대로 들어맞을 것이며 옳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나이 든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쳐야 함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온 나이든 자매님이 가르치면 젊은 자매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인생에 부어주신 복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남편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자매님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남자들 중에는 한결같지 않고 게으르고 뉘새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보다 더 형편없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자매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1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연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벧전 3:1-2)

행실은 말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에게 바로 성경을 들이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들이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신은 왜 믿지 않느냐고 따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로 설득하거나 납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책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거기에 기록된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와 성경을 놓고 논쟁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에 성경을 들이밀면서 당신은 왜 믿지 않느냐고 다그치거나 저주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박지르는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없이 정숙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남편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제쳐두고 통하지 않을 방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자동차 주유구에 기름대신 모래를 가득 부어 보십시오.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 남편을 믿게 하기 위해 그에게 성경을 들이대는 일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며 이야기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여섯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곱째 명령은 3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땅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제가 구원받은 시기에는 설교자들이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짧은 치마와 소매가 없는 블라우스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경고를 하는 설교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하면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청중이 화를 내지 않을 만한 주제만을 골라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여자의 옷차림에 대한 본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단순한 옷차림에 대한 말씀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말이 아닌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예전에도 거룩한 여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절과 4절은 단순히 옷차림이나 치장에 관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는 마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외적인 아름다움뿐이고 내적인 아름다움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과 건전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설교하거나 성경 구절을 인용해 보여준다고 해서 남편의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을 살면 남편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남편에게 행하는 그 선한 행위를 통해 남편은 자신을 돌아볼 것이고 아내가 어떤 이유와 능력으로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사악한 사람이라 해도 마치 최고의 남편인 것처럼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은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무엇이 아내를 그렇게 바꿔놓았는지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직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조용한 영의 장식”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내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는 마네킹이 아닙니다. 아내도 말을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대화 that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조용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불평하거나 논쟁하거나 말싸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 뒤에서 욕하거나 비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짓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성경은 다투는 여자와 사느니 차라리 지붕 꼭대기에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잠 21:9, 25:24) 불평하고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지적하고 비평하는 게 고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옳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비평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싶은 자매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남편을 화나게 할 뿐입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값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마음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영을 달라고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못난 남편에게라도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결혼한 남편에게도 충분히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

하게 대할 수 있다면 집에 와서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남의 남편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할 수 있다면 자신의 남편에게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본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에게 잘못 행한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잘못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이 남편과 동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매님들도 자매님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창 3:16)** 출산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고 하는 여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의 열망이 남편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과 성취와 소유는 모두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브는 남편의 말을 듣는 대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브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마귀)의 인도를 따라가다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에게 그녀가 따라가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녀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따라가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브를 책망하시고 그녀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남께서는 여자를 미워해서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의 죄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자에게 마귀가 주는 열매에 열망을 두지 말고 남편에게 열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망을 두지 말고 남편에게 열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돌지니라.”**(고전 7:2)

성경은 여기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해주었지만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돈을 주고 여자를 고용해서 자신의 집을 청소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를 고용해서 음식을 하게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남자가 여자를 고용해서 빨래를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고 여자를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매님들, 안전하고 안락한 가정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들과는 달리 다른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 무엇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3-4절)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성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그는 성도착자입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성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그는 성도착자입니다.

다. 그런데 남편이 여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는 성도착자가 아닙니다. 그는 남자인 것입니다. 잠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보는 잡지는 집이나 화초나 구두 같은 것의 사진이 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보통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보는 잡지는, 예를 들면 여행관련 잡지라 해도 여자가 나옵니다. 자동차 관련 잡지에도 여자가 나옵니다. 낚시 관련 잡지에도 여자가 나옵니다.

제가 비밀 한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성도착증세가 있어서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심오한 얘기입니다. 물론 여자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여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온통 화분이나 정원을 꾸미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보, 제가 새로 사온 화분 좀 보실래요?” 그러나 남자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화분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입니까? 커튼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입니까? 가구를 새로 배치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례한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요리법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자매님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혼인생활에는 육체적인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가 남편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아내로서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결혼 관계 밖 다른 곳에서 다른 여자를 통해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100%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서 만

죽을 찾게 하는 것도 100% 잘못된 일입니다. 한쪽이 사실이면 다른 쪽도 사실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만 충실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간음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할 수 없고 아내는 남편이 그러한 변명을 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만 하고 가능하면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을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으니라.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1-8)**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출생하면서부터 가족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은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한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은, 가정의 머리가 되라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과 아내를 순수하게 지켜주라는 것과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것과 각자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과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과 아내와 지식 가운데 동거하라는 것과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과 아내를 합당한 애정으로 대하라는 것과 남편의 몸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과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라는 것과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과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말없는 행실로 순종하라는 것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것과 온유와 조용한 영으로 내면을 장식하라는 것과 열망을 남편에게 두라는 것과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과 아내의 몸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과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8장 아내가 빠지는 함정

우리는 23년 전 오늘 미시간 거리에 있는 우먼즈 클럽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⁷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목표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다섯 명의 헌신된 사람과 오십 명의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회와 관련하여 구한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좋은 성경 교사들이 있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형제들이 있으며 양로원과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도 있고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매년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해마다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하는 일, 하나님께서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섬기려고 세운 우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우상이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흥미를 느끼고 즐기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신 분 외에 누가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겠습니까?

⁷ 이 성경 공부는 2010년에 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현재 제임스 닉스 목사의 성경침례교회(THE BIBLE Baptist Church)는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역주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올림픽 기간에 메달리스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사람과, 즉 전에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간음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메달리스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은 저의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큰 교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진리를 타협해 가며 큰 교회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미 제가 생각한 것만큼 충분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경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성경이 없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어야 참된 행복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백배는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 어떻게 압니까?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80년에 전체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을 했습니다. 1998년에는 절반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성경을 따라 살지 않은 결과입니다. 전체 미국인들 중 27%는 이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29%나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이혼율이 비기독교인의 이혼율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의미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과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네다섯 군데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류가 전혀 없는 킹제임스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려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오류가 있는 성경이라면 여러분은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을 보고도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는 완벽한 성경인 킹제임스성경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옳다고 인정해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땅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主)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벧전 3:1-6)

이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잠시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벧전 2:18) 좋은 주인도 있지만 나쁜 주

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주인이든 나쁜 주인이든 주인들에게 복종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나?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끝 부분의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도 주인은 전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21-24a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하게 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하게 대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선하게 대한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셨고 악하게 대한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악한 주인을 섬기는 좋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주인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통해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

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1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듯이 모든 남편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남편이 자신이 해야 할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냐 나쁜 주인을 섬기는 종이냐 동일하게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3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좋은 남편에게나 나쁜 남편에게나 동일하게 복종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고장 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장 난 남편은 순종하는 아내의 선한 행위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남편은 결코 고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께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이 악한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내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러면 성령님께서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종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한도 내에서 주인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가능한 모든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선하게 대하는 데에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선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충분히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악한 남편에게 그가 악하다고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면 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말없는 행실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남편에게 보여야 하는 모습은 단순히 겉모습의 치장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눈여겨보는 것은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변화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주님께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남편의 마음도 움직일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즐기며 선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의 문제는 남편을 말로 이기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말씀하신 남편을 주님께로 이겨오는(언어오는) 방법은 말이 없는 행실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4절에서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아도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 본이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결혼한 자매님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류가 없고 완벽한 킹제임스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⁸ 아브라함은 네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휴식을 취할 적당한 모텔을 찾고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고 보니 주위의 이웃들이 상당히 거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들을 뉴스와 인터넷에서 본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라가 아내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인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숙소에 들어가면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누가 사라를 데려가고자 한다면 데려가도록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한 짓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비멜렉텔이라는 모텔에 들어갑니다. 모텔 주인은 방 두 개를 내어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있는 방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손을 대는 날에 너는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좋은 아내가 나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남편에게 순종하는 좋은 아내를 남편을 대신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⁸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성경 기록을 근거로 저자가 각색한 것입니다. -역주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아내들아, 너희는 비록 남편이 항상 좋은 남편은 아닐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제 둘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후 2:8)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들이 어디에서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모든 곳에서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9절) 8절은 남자들은 모든 곳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보십시오. “또한 이런 식으로” 8절이 하나님의 뜻이면 9절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들이 정욕을 품게 하는 옷은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잡지에는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하는 옷을 입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입지 말라는 겁니다.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금방 시들고 사라지는 외모에 대한 게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내면의 영적 아름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형제님들, 아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남편에게 매우 큰 축복입니다. 자매님들, 교회에 오면서 오직 외모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옷과 머리와 신발을 모두 단정하게 해야 하지만 가장 단정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바르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12-14절)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고전 14:34-35)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고전 14:36)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주시는 분과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들이 죄에 취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잠언에서는 술 취한 자는 술이 깨면 다시 술을 마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술을 찾는 것입니다. 술이 몸을 망친다는 것을 알지만 술을 마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 시대의 이교도들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이교도들은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딸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딸들은 TV나 잡지나 인터넷이나 영화를 보면서 여성상을 정립합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세상과 타협해 버린 교회는 여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주의 목사가 자신의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지하실에 가둔 사건을 뉴스에서 볼 뿐입니다. TV에 나오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 기괴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TV를 보며 자란 사람들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대에 뒤 떨어진 것을 전하는 이상한 괴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V에 완전히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쓰레기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이 세상의 여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인 자매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서는 교회가 시창각 교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

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자매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설교를 매주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을 받고 동일한 피로 씻김을 받으며 동일한 영생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영적 선물(은사)을 받으며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동일한 분께 기도해야 하며 동일한 중보자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영적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두 구절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며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두 구절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이 두 구절이야말로 여러분을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정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불순종을 보고 배울 젊은 자매들을 그러한 불행을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영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자가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하며 주

님께서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 세상에 보여줍니다. 침례를 통해 주님께서 해 주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자 설교가 끝나고 어떤 여자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의 아내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선하게 해주셨군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육십 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며 혹은 고난 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르자**라야 하리라.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에 결혼하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딤후 5:9-12) 결혼을 하고 나서 신앙을 버렸다면 그 결혼처럼 불행한 결혼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형제님들, 젊은 자매님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다시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결혼하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과 신앙을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끔찍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게으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떨

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수다 떨고 참견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가정을 위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고귀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다나 떨고 있고 참견이나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잘못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게으른 여자들은 가십거리를 찾습니다. 수다 떨 소재를 찾습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소문을 냅니다. 루머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동시에 수다쟁이일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참견하기를 좋아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딤후 2:3-5)

이것이 말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로한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젊은 자매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

러분의 딸에게 정숙함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은 설교자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과거에도 설교자의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일이고 어머니의 일입니다. 그러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없는 자매에게는 교회에서 연로한 자매님들이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는 단지 입술로만 가르쳐야 할 게 아니라 삶을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자매님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인 자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배워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서 연로한 자매님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자매님들, 남편에게 한 비난과 거친 말들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말들이 어떤 유익을 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모두 아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남편을 비난하거나 그에게 거친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남편 욕을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을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는 젊은 자매님들이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정신을 어지럽힙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연로한 자매님들은 젊은 자매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을 보살피야 한다는 것은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가정을 보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정은 또 다

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성 모독자일뿐입니다. 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독할 것입니다.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아내가 삼백 명이었고 첩이 칠백 명이었습니다. 그는 천명의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아마 날마다 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을 챙겨줘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해 아래 모든 일이 헛되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남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잠 21:9)

자매님들, 여러분이 남편과 다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붕 위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지붕 위에 있으면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바람을 맞습니다. 햇빛에 살갓이 타 들어 갑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남편이 이러한 모든 일을 당하는 게 싸우려고 달려드는 여러분과 함께 따뜻하고 시원한 집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교활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 21:19)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에는 방울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끝없는 모래가 있고 무슬림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찾아올 것은 불행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다투거나 남편에게 성내는 것은 온유하고 조용한 영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고전 7:13)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왜 믿는 여자와 함께 살려고 할까요?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왜 믿는 여자와 계속해서 함께 살려고 할까요? 이 남자는 이 여자와 함께 한 가정이 편안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믿지 않지만 믿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남편은 광야나 지붕 위가 아닌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다른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은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팔아먹은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사라는 그러한 나쁜 남편의 명령에도 순종한 좋은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남편에게 순종하는 좋은 아내를 남편을 대신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딤후 2:12-14, 고전 14:34-36).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세상과 타협해 버린 교회는 여자가 어떠한지 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사실을 대부분의 이 세상의 여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인 자매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가 시청각 교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여자들은 가십거리를 찾습니다(딤후 5:9-13). 수다 떨 소재를 찾습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소문을 냅니다. 루머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동시에 수다쟁이일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로한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딤후 2:3-5). 어머니는 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

면서 말로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씀을 모독할 것입니다.



제9장 남편이 빠지는 함정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이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종이 나쁜 주인이든 좋은 주인이든 상관없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은 7절에서 남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들도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같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벧전 3:7)

남편은 아내들과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더 약한 그릇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7은 이러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로 끝납니다.

아내와 남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살펴보고 나서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

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히 13:4-6)

형제님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어떤 일을 했건 어떤 환경에 있었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구원자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대적하고 돌아서고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와의 이러한 영원한 관계 속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으로 인해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과 책임져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돕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어떤 일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을 여러분의 아내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낮에 일할 때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남편이 자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그 어떤 일이 생겨도 남편이 자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자신을 배반하거나 친구가 등을 돌려도,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중에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한 순간도 남편이 혹시 떠나지나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남편이 이기적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해 주신 것을 남편은 아내에게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남편들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남편으로 인해 아내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남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자신을 돕는 자가 된다는 확신을 아내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편이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남편이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을 남편이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남편이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을 아내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에 따라 그들과(아내들과)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과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은 할리우드나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배웠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

니다. 경건한 어머니에게 양육 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경건한 할머니나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매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 데려가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TV나 영화에서 보이는 모습이 여성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성에 대해 배운 게 친구들을 통해 배운 것이 전부라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성에 대해 배운 게 포르노를 통해 배운 게 전부인 사람은 여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실재가 아니며 모두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므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 139:1-10)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에게 대해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원하시며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디에 있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제가 남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주제는 바로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어쩌면 이 연구는 여러분의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내는 매우 복잡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감정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고 필요로 하는 것도 여러분과 다릅니다. 아내가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릅니다. 남자끼리는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은 여자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릅니다. 매우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시 139:1) 주님께서는 남편들이 주님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앓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언제 힘이 샘솟고 언제 힘이 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겨워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므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

오니”(2-3절) 아내를 아는 것보다 야구를 더 잘 아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내를 아는 것보다 자동차를 더 잘 아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열정을 쏟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내에게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하며 그 무엇을 아는 것보다 아내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아내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아내와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 알아야 하고 아내를 알아야 합니다.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아내를 아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4절) 여러분은 아내와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5절) 여러분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손을 우리 위에 얹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손을 얹는 것은 잘못이지만 아내에게는 손을 얹고 앞뒤로 에워싸야 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아내를 안아줘야 합니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6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신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아내도 우리로 인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들도 남편의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 놀랍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아내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

로 피하리이까?”(7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의 아내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7에서 말씀하시는 셋째 사항은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길 양 옆으로 함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쪽에도 빠지지 않게 주의해서 정 중앙으로 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로부터 먼저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들을 받고 나중에 저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할 저택과 황금 길과 새 예루살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또 다른 쪽의 함정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아내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질은 결코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현대문명이 주는 혜택이 없다고 해서 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할머니들은 그런 게 없이 살았습니다. 지난 수 천년 동안 사람들은 그런 것 없이 살았습니다.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상아 궁궐에서 나오는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네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네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

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도다.”(시 45:8-15)

본문에 나오는 왕은 왕비의 아름다움에 열망을 두었습니다. 왕은 최선을 다해 왕비에게 가장 좋은 의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한 여자에게 최선을 다해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남편의 열망은 아내에게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눈을 뒤야 할 여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아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고전 7:32-33)

만일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돈을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절대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서도 돈을 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34절)

이것은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직한 두 종류의 여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은 자매님들은 잘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람직한 두 종류의 여성은 바로 아내와 처녀입니다. 여러분은 처녀이든지 혹은 아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처녀

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내라면 여러분은 처녀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질문을 하려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할 뿐입니다.

성경은 처녀가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 살고 게다가 남편이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7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넷째 말씀은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살전 4:3-4)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7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외모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릅니다. 동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올림픽에서 여성과 남성은 따로 경기를 치르는지 아십니까? 여성은 남성처럼 달리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들어올리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과 성경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은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사실에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남자는 군대에 가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것을 이루려는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중세에나 통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성경과 세상이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짐을 가볍게 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와 함께 멩예를 지고 아내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멩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마 11:29).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멩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마 11:28-30)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가벼운 멩예를 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내도 우리로 인해 가벼운 멩예를 멜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겪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내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과 같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7에서 주는 마지막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함께 상속을 받을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롬 8:17)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신부인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내와 나누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남편들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내에게 대한다면 그것은 단지 정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벧전 3:7)

오늘 제가 전한 말씀대로 아내를 대하기 원하지 않는 형제님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해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내를 대하지 않는다면 주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잘못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영적인데 아내가 육신적이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내에게 대해줄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내에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신 것처럼 아내에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나서 주님께 나아가 축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라기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네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네 짝이요 네 언약의 아내니라. 그분께는 영(靈)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말 2:14-16)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매정한 남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13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다.

성경은 “지식에 따라 그들과(아내들과)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에게 대해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시 139:1-10).

베드로전서 3:7에서 말씀하시는 셋째 사항은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최선을 다해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시 45:8-15). 남편의 열망은 아내에게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눈을 뒤야 할 여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아내입니다.

결혼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고전 7:32-34).

베드로전서 3:7이 남편에게 하시는 넷째 말씀은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살전 4:3-4, 고후 4:7). 성경은 아내는 남편보다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마 11:28-30).

베드로전서 3:7이 남편에게 주는 다섯째 말씀은 아내를 함께 상속을 받을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8:17).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신부인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내와 나누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서 여러분에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내에게 대한다면 그것은 단지 정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벧전 3:7). 만일 여러분이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말 2:14-16).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서 동시에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내에게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0장 자녀 양육

우리는 성경이 가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과 에베소서 6장을 중심으로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무엇에 사용하는지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도하는 길로 아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인가는 대부분 부모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어느 날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큰 흰 왕좌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실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의 지리에 관해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주율이나 근의 공식을 묻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불행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같은 방식과 같은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것을 모두 구매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 숙제, 시험 등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나 예배나 기도회보다 학교와 숙제와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으로 아이들의 인생과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석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는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영광의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가 서게 될 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회계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회계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계보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대부분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입니다. 아이들이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부모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모든 시간과 힘과 능력을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데 집중하도록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mammon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아이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mammon(돈)을 만들 수 있는지에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혼이 mammon이 아닌 그보다 더 소중한 분을

사랑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신명기 6장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6장이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명기 6장을 통해 자신의 백성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젃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네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네 집의 기둥과 네 문에 기록할지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네게 주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집 곧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 곧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주사 네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고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네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신 6:3-15)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인간은 크고 좋은 도시에 살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는 결코 타 본 적이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는 살아본 적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는 결코 맛보지 못한 음식과 옷과 그밖에 편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같이 되어 버립니다. 마치 성경도 없는 민족처럼 되어 버립니다. 아이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완전히 이교도로 성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 본적이 없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완전히 이교도가 되어 버린 아이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가수나 영화 배우들로 가득 차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옷과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 그 자체, 물질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마음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를 비평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나은 디곳, 따라 해봐.” 하면서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아이가 “기억 나은 디곳”이라고 하면서 따라 하면 칭찬합니다. “일 더하기 일은 이, 이 더하기 이는 사” 라고 하면서 산수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칠 때는 정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에는 그 “열심”이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아이들에게 열심히 글과 산수를 가르치는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가르치십니까? 수학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도 중요합니다. 수학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는 아이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결정한 문제입니다.

아홉 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은 모르면서 피노키오는 압니다. 로빈 훗도 압니다. 상체는 거의 벗고 다니는 인어공주도 압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포카 혼타스도 압니다. 디즈니랜드는 돈을 벌기 위해 여성 인물들의 옷을 벗깁니다. 아이들은 텅커벨이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실존하지도 않는 인물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결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런 허구의 인물들은 잘도 알면서 엘리야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사도 바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은 결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부모가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부모들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들과 같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부모들도 이 세상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것도 알아야 한다는 명목 아래 쓰레기 같은 세상의 것들로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버리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마음 속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구원받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교육 철학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돈벌이에만 신경 쓰고 죽어가는 혼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6:7을 보십시오.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아이들과 드라마를 보고 운동경기를 보고 뉴스를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게 죄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영원히 의미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거의 의미 없는 것들을 하느라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

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집과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 주었으니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을 모르는 가난한 민족의 아이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 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여러분이 운전할 때 아이들은 무엇을 들으면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듣습니까? 아니면 음행을 조장하는 이 세상의 음악을 듣습니까?

주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이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아이들은 후에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지와 무엇을 위해 살지와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합니다. 썩어 멸망하는 것을 위해 살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위해 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학교에 가고, 숙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취미를 갖고, 어디에 가서 쇼핑을 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나, 장성했을 때나, 늙어서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선택합니다. 아이들이야말로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는 부모의 간증입니다.

성경은 “누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남매가 길을 잃을까 봐 빵 조각을 길에 떨어뜨리

는 이야기나 늑대가 할머니로 분장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이야기 등을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보다 흥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야기나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설교자를 하늘로 데려간 이야기나 우리의 구원자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나 주님께서 묻히셨던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면 허구의 이야기보다 진실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 아이들에게 지어낸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왜 아이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보다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어낸 이야기나 들은 아이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8절에서는 “**너는 또 그것들을 네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집이나 돈이나 자동차나 옷이나 부동산이나 외모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또 네 집의 기둥과 네 문에 기록할지니라.**”(9절) 집에 빈 술병이 가득하고 탁자 위에 있는 재떨이에 담배꽂초가 수북한 것보다는 암송해야 하는 하나

님의 말씀을 적은 종이가 벽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또 네 집의 기둥과 네 문에 기록할지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네게 주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집 곧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 곧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주사 네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에”(10-11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조심하여 주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어떻게 구원받은 어머니와 구원받은 아버지 밑에서 양육 받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산타 클로스를 더 만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산타 클로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도 아닙니다. 대언자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사도들과 구원자가 실존인물들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에서 살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신앙 생활을 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허구의 이야기나 전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말로 변명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예외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을 통해 이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1) 가장 불행한 일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부모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회개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2-3절) 여러분은 공경받을 만한 아버지입니까? 공경받을 만한 어머니입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부모로서 공경받아 마땅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부모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고, 게으르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공경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된다면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을 훨씬 쉽게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제발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휴, 또 저러시네.”가 아니라 “저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현관에서 소변을 보는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동네 아저씨와 불륜을 저지르는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부모가 먼저 마땅히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세상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4절)

아마 아이들이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구원받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자신들을 만드신 거룩한 분의 눈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둔다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가 바로 우리 신앙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간증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 돈과 성공과 물질과 이 세상에서의 번영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과 참되고 진실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화를 찾는지 배우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우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 주는지 배우고, 어떻게 영원을 소망하면서 사는지 배우고,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배우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bring them up).**”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은 “양육하라”고 하지 “어디로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고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들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고 “자녀들이 의롭게 살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하라(bring them up)”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육은 단순하게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인도해서 자녀와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양육입니다. 자녀가 의롭게 살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길로 인도하며 함께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데려가는(bring them)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히 가르치는 것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중에는 우리가 강조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루에 7~8시간 이상을 이 세상 공부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숙제도 하고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은 열 시간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낸다면 적어도 오십 시간 이상은 이 세상 것들을 공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은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40분이 고작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글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을 공부하는 데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쓰신 마가복음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입으로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말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배운 자녀들이 자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급급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될까요?

저는 예전에 자신의 자녀가 학교 농구팀에 들지 못한 것을 두고 농구팀 감독에게 항의하는 학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농구팀에 들지 못하면 교장을 찾아가서 항의하겠다고 감독에게 으름장을 냈습니다. 자신의 자녀의 장래를 위해 그런 열정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동일한 열정으로 자신의 자녀가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부모들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데에는 그렇게 열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창 18:18) 여러분은 왜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과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을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안에 속한 자녀들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요일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갈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갈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상승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대륙의 절반을 가로질러 떠나야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친구와 학교와 직장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

나야 했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인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벗어나서 살아계시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자녀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 같이 세상으로 나와 주님의 길로 들어서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그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섬기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너희 자녀들을…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bring them up).**”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정하신 길로 데려 가야 합니다(bring them up). 여러분이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절망했습니다. 직장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장은 비어있었고 곡식은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세계대전 중에 5천만 명의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5년 동안 죽게 됩니다. 아시아인들과 유대인들도 천만 명 가량 죽게 됩니다.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은 대공황 이후 전쟁 기간 중 일년에 천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술에 취해 바람을 피우고 음행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600개나 되는 지역 방송국을 점령하기 전이었습니다. 올리버 그린(Oliver B. Green)과 찰스 풀러(Charles Fuller) 같은 설교자들이 수백 개의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940년대와 50년 대에는 미국에 제대로 된 부흥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끝나자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일상적인 평화를 맛보게 되고,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한 물질적인 번영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와 좋은 옷을 소유하게 되고 근사한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자,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경험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자전거를 사주고 집에 수영장을 만들어주고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을 빼고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못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을 가지게 된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자녀들도 주일 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구원자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TV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수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80~90년 대가 되어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자, 그들의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교도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사교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막대한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

리고 이교도들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붙들고 있는 것은 껌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믿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아이들은 거의 불신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가르치지 않고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아닌 소유한 물질의 양으로 상대를 평가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와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 학교 교사로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과 생각에 진리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하게 필요한 일은 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진보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든 보수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든 강도와 절도 같은 범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신명기 6:3-15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부모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이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부모에게 순종했는데(엡 6:1)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엡 6:2-3).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부모로서 공경받아 마땅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 6:4).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육은 단순하게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인도해서 자녀와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데려가는(bring them)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화를 찾는지 배우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우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는지 배우고, 어떻게 영원을 소망하면서 사는지 배우고,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배우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이

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그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11장 자녀 징계

시편 33:4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로마서 3:4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이들의 징계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시대에 뒤쳐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자녀 징계에 대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전체가 반대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십니다.

둘째는 성령이 자녀 징계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항상 그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항상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귀여운 아이들을 왜 자주 바로잡아야 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엡 2:1-3)

모든 시대의 모든 아이들은 죄를 짓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부모가 정해 놓은 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선을 정해놓든지 간에 아이들은 그 선을 넘어갑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이들은 이 본성에 따라 죄를 짓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죄를 짓는 쪽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시속 60km로 가라고 하면 80km로 갑니다. 무료로 하나씩만 가져 가라고 하면 두 개를 가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타고난 모든 아이들은 법을 위반하고 규칙을 어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선생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또 성경은 3절에서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양심과 하나님께서 비취 주신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결길로 가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고,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른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잘못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

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고전 2:14)

이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은 본성상 불순종적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아이들의 죄값을 모두 치러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가르치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로 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간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해 줄 수는 있지만 골리앗은 자신의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불경건한 이교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단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영적 원칙을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영적 원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식인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성경적으로 교육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는 너무 늦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거듭날 수 있기 전까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거짓 교리 하나가 또 다른 거짓 교리로 인도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신교회는 로마 천주교로부터 나왔습니다. 로마 천주교회에 속해 있던 신부들이 교황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했으며 끝내 천주교회를 개혁하여 개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회에서도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유아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3살짜리 아이도 유아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유아세례를 받은 9살짜리 아이는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 즉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어린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어린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사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기들, 즉 갓 태어난 아기들은 “하나님의 아이(a child of God)”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물로 직접 아기를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 혹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이해할 만큼 아이가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까지는 아이들을 영적인 방법으로 훈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둬나지 않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둬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것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고전 2:14).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한 다른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훈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먼저 전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이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전 8:11)

콘크리트는 마르기 전에 모양을 잡아야 합니다. 다 마르고 나면 더 이상 그 모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 마르고 난 후에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거나 깎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 그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서 완악해지고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완전히 사악해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아직 굳기 전과 같이, 아직 마음이 완전히 완악하게 굳기 전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집행하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로 경고해 놓고 실제로 바로잡지 않으면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과감하게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미루면 결국 아이들의 마음은 악한 상태로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왜 즉시 징계해야 할까요? 즉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아이에게 다가와서 성경에서 구절을 찾아 보여주며 얘기합니다. “얘야,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단다. 이것은 너에 대한 말씀이란다. 성경은 죄의 삶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단다. 만일 네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말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믿지 않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도 엄마가 징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빠가 징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징계와 진노와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도 결코 징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자란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못을 해도 부모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하나님도 결국 죄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지어도 정죄 받거나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으로부터 떠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는 결국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선생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동일하게 잘못을 범하면 교장 선생님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어머니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징계를 받고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 아

버지에게 두 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징계인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은 아이는 죄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징계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부모들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교회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학교에서 교사가 잘못을 범한 아이를 징계하면 부모가 찾아와서 교사를 고소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아이들에 대한 징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고 성장한 아이들은 결국 하나님도 믿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며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언이 기록된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1:10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이야, 죄인들이 너를 끌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친구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여러분의 아이들도 죄인이고 여러분의 아이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둘러싼 아이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죄를 짓도록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의

친구들이 모두 끔찍한 짓만을 한다든지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두 죄를 짓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죄의 결과가 즐거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의 삶은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를 짓는 동안은 잠시 즐거울 수 있으나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이 뿌린 죄의 씨앗에서 자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열매가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때가 되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것이 바로 싹을 내지 않아도 언젠가는 싹을 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그것을 범하는 동안에는 즐거워 보이거나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죄가 주는 즉각적인 즐거움만 생각하지 그 결과를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이들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본성상 불순종과 범죄와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쫓겨 나갈 때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1:20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잠 1:20-23)

여기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세상 사이에 서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일이고 바른 일인지 알려주고 죄에 대해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토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토론이 아닌 훈계와 책망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할 때 여러분이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말에 복종해서 그 말대로 해야 합니다. 열 시에 자라고 하면 자야 합니다. 왜 그 시간에 자야 하는지 설명해줄 의무가 부모님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1:24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네 재난을 보고 웃으며 네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그때에 네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네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며 네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잠 1:24-27)

여러분은 부모로서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친구가 아닌 부모입니다. 엄마이지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아빠이지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재난과 멸망과 고난과 번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하면 자녀가 자신을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물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도 징계를 받으면 그 당시에는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아이들만이 미래

를 바르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의 친구들이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길로 아이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믿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위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주위에는 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보다는 친구들에게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불순종의 자녀들인 아이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 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잠 22:15)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회초리를 통해 부모에게 징계를 받아야 언젠가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징계함으로써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항상 징계가 따르는 사실을 알아야 나중에 복음을 들을 때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잘못한 아이들에게는 회초리로 징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강도로 회초리를 들어야 할까요? 성경은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매여있는 어리석음이 완전히 끊어져 날아가 버릴 정도로 징계해야 합니다. 회초리가 어리석음을 몰아내어 아이에게서 멀리 떠나게 할 정도로 징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징계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서 어리석음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어리석음은 마약중독이나 십대임신이나 폭력씨클 활동이나 그 밖의 다른 범죄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잠언 13장을 보겠습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He that spareth his rod hateth his son: but he that loveth him chasteneth him betimes)”**(잠 13:24)

성경은 **“자기 회초리(his ro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회초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징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면 결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징계하는 부모가 자신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게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어릴 때(betimes)”**라는 말이 고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성경에는 고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성경에 나온 단어들은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betimes)”라는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성경은 두세 번이나 아홉 번만 징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betimes에서 접두사인 be는 정해지지 않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징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

제나 회초리로 징계해야 합니다.

제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성경적인 징계를 받으며 성장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차고 있던 혁대를 끌러서 탁자 위에 놓으시며 “이제 혁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혁대가 부른 노래는 매우 슬픈 노래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노래하는 것은 혁대가 아니라 그 혁대에 맞는 아버지였던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있을 동안에 네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네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잠 19:18) 운다고 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동전을 넣으면 장난감이 나오는 기계에 동전을 넣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때도 읍니다. 과자를 달라고 투정을 부릴 때도 읍니다. 따라서 아이가 운다고 해서 그제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회초리로 징계해야 한다는 것은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잔인한 사람은 마약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술을 파는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을 잘못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을 징계하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잠 23:13-14)

아이의 육신을 징계했는데 그것이 결국 아이의 혼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의 육신을 징계하는 것은 아이의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죄에 대한 형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터득해서 알고 있으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아

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온 “때린다(beat)”는 표현이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때린다(beat)는 표현은 잔인한 표현이 아닙니다. 드럼을 칠 때도 “beat” 라고 합니다. 드럼을 치는 것은 드럼을 부러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소리를 낸다는)을 가지고 적당한 힘을 들여 드럼을 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beat라는 표현이 무자비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쳐서 이빨을 부러뜨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이를 징계한다는 명목 아래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사람들을 위한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아이를 성경대로 회초리로 징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폭행하는 것은 폭력일 뿐입니다.

아이가 구원받아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회초리로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줄 수 있기 전에는 회초리로 징계해야만 합니다. 잠언 10장을 보겠습니다.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서 지혜를 찾으려니와 명철이 없는 자의 등(back)을 위해 회초리가 있느니라.”**(잠 10:13)

우리가 아이를 징계할 때 회초리로 어디를 때려야 할까요? 아이의 뒤쪽(back)을 때려야 합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는 곳이 아닌 부분을 때려야 합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잠언 29장을 보겠습니다.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잠 29:15)

저의 세대는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아이를 양육

한 부모를 욕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아이를 괴물로 키운 부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죄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풍성한 죄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아이를 낳고 기른 부모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히 12:7-11)

히브리서 본문에서 세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항상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모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유롭게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부모가 징계하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 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자녀를 바로 잡고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에게 징계를 받고 바르게 성장한 자녀는 성인이 되면 부모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

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
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잠 1:24-27). 부모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
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아이들을 자신의 길로 데려가 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어리석음을 몰아내는 방법은 회초리로 징
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22:15). 성경은 또한 아이의 뒤쪽을 때
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10:13).

부모는 아이를 징계하기 위한 자신의 회초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잠
13:24). 아이를 징계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회초리로 징계를 해야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
다(잠 23:13-14).

아이를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아이는 풍성한 죄의 열매를 맺을 것
이고 그 아이를 낳고 기른 부모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잠 29:15).



● 제12장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

자녀에 대한 셋째 시간입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 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딤후 2:1-8)

성경은 단순히 “늙은(old)”이라고 하지 않고 “연로한(aged)”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ged라는 말은 나이를 더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보다 나이가 더 많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 젊은 형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어떤 자매가 다른 자매보다 나이가 더 많다면 자신이 그 자매보다 더 산만큼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은 일정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신보다 젊은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지질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물질주의적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가르치려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언젠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장 앞에 서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자는 여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연로한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하고 젊은 여자들은 다른 젊은 여자들이나 소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로한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을 가르쳐야 하고 젊은 남자들은 다른 젊은 남자와 소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설교단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

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고 설교단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남자들은 자신보다 젊은 남자들을 가르쳐야 하고 모든 여자들은 자신보다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로한 여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로한 여자들(aged women)”은 “나이든 여자들(old women)”이 아닙니다. 나이든 여자들은 노인을 말하지만 연로한 여자들은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로한 여자들”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30세인 여자는 노인은 아니지만 20세인 여자보다 “연로(aged)”하다는 것입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성경은 연로한 남자들이 자신보다 젊은 남자들에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로한 여자들도 자신보다 젊은 여자들에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패션은 교리가 아닙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잡담도 교리가 아닙니다. TV 드라마 얘기도 교리가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건전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연로한 여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따르면서 기록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젊은 여자와 함께 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주님의 길로 걷는 게 축복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자매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자매들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자매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매주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경건한 자매는 어

떻게 입는지 적절한 옷차림을 통해 보여주면 더 큰 교육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목록을 붙여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경건한 자매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와 말을 통해 본을 보이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자매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자매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통해 자신들보다 젊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형제들은 자신들보다 나이든 형제들을 지켜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켜보며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여러분을 보며 자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목사나 욱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분열을 야기시키며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기뻐하고 교회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근심과 걱정만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보고 젊은 사람들과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배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말은 거룩하고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지저분한 말이나 쓰레기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사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위를 통해 젊은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말과 행위로 가르쳐야 합니다.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사랑은 선한 것입니다. 기쁨도

선한 것입니다. 평안도 선한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도 선한 것입니다. 진리도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은 많습니다. 게으름은 선한 게 아닙니다. 험담도 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 젊은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교육입니다.

자신보다 젊은 자매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며”** 첫째, 맑은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고 컨디션이 나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는 우리는 맑은 정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면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둘째,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남편을 떠나버리고, 남편을 속이고, 남편을 깔보고, 남편의 험담하고 욕하고 배반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자매님들은 행동과 말로 젊은 자매님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셋째,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상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니 말입니다.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전혀 이상한 구절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어머니들도 많습니다. TV나 영화가 무엇을 가르치든 상관하지 않는 어머니들도 많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어머니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어머니들은 좀 다릅니다. 자녀들은 세상에 맡겨버리고 집이나 자동차

나 돈이나 경력이나 애완동물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며 비극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해야 할 사역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신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신중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것도 신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만한 것을 온라인 상에 올리는 것도 신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의 험담을 하는 것도 신중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면 결코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험담을 하고 다니고 교회의 모든 자매들이 그 험담을 들으면 남편은 결국 그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코 남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이 신중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자기보다 젊은 자매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생활에 대해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공중파 TV나 라디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로 젊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숙하고” 예전에는 정숙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정숙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타락하면서 이제는 정숙하지 못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자신들의 정숙하지 못함을 자랑합니다. 자매님들은 자신보다 어린 자매들에게 정숙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혼하기 까지 순결하고 결혼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을 보살피며(keepers at home)” 가정을 보살피야 한다는 것은 집 밖으로는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을 보살핀다는 것

은 가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성(castle)을 지키기 위해 항상 성 안에만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선하고**” 자매는 선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선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은 모두 반쯤 벗은 상태로 나옵니다. 그들은 만화 영화를 통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자를 만나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을 무언중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자들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반쯤 벗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디즈니 만화영화는 단지 아이들이 즐기기 위한 만화일 뿐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교육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족 영화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영화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자매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선한 자매가 가는 곳에 가야 합니다. 선한 자매가 가지 않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자매가 되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선한 자매가 되는 것은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제 젊은 자매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이든 자매가 젊은 자매들을 그들의 남편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네, 여보.” “그렇게 할게요.” “당신 말대로 할

게요.” 라고 말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상사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자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만 가지고는 이러한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들의 결혼식 예행연습에서 주례를 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22살의 젊은 설교자였는데 신랑은 70세였고 신부는 50세였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까?” 고 물었고 신랑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부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고 물었는데 신부는 “아니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신랑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묻자, 신부는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예”지만 “순종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을 쳐다봤더니 신랑은 얼빠진 사람처럼 신부를 쳐다보며 나무처럼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예행연습이 끝나고 저는 신부에게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그 신부는 “형제님의 일이 아니니 저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나이 많은 신랑을 차에 태워 집으로 가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나이가 어리고 형제님은 많으시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자분과는 결혼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 신랑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결국 그들은 결혼했고 그 여자는 자신의 약속대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형제님에게 연락을 받고 그의 신혼집으로 가보니

가구와 가전제품과 심지어 커튼까지 모두 사라져 버려서 집은 텅 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서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 형제님은 울면서 도저히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형제님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차라리 혼자 살 걸 하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여자라면 결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여러분은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한다고 해서 존경하고 순종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TV나 영화에서는 온갖 추잡한 역할을 하고 비성경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 TV에 나와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증하는 여배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짓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반나체 상태로 TV에 나와서 음행과 간음을 조장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에 다니고 콘서트 전에는 기도한다고 하는 여자 가수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매님들, 만일 여러분이 신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숙하지 않으며, 가정을 지키지 않고 선하지 않으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간증과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며 모독 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형제님들에 대한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들은 선한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아버지들은 꾸준히 선한 행위를 함으로 아들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아들은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형제님들, 여러분은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족 기도를 인도할 사람도 여러분이고 가정 성경공부를 인도할 사람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정에 제단을 쌓을 사람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직장 일이 바빠서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스포츠 시청을 줄이십시오. 신문을 읽는 시간이나 뉴스 시청을 줄이십시오.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십시오. 인간은 지난 6천 년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도 살아왔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쉽게 요동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신중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아이들은 배웁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비난 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이 서로 맞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본이 보이는 삶을 살면 가장 최악의 원수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지어내기 전에는 여러분에 대해 나쁘게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기록된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롬 14:11-12)

만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그 회계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서서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분 앞에 서서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해 교육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 묻지는 않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수학이나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숙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

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결코 묻지도 않으실 것은 열심히 교육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에 대해서는 결코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시편 127:3에서는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구원할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아이들의 몫입니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15가지 진리들은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 아이들에게 전해 준 것들입니다.⁹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 1:1)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히 11:6), 그리고 그분은 창조자 이시며(전 12:1), 언젠가 아이들은 그분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롬 12:10)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 속에 두고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가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신 6:6-7) 아이들에게 성경의 명령과 이야기와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

⁹ 이 내용은 원래의 강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으로 제작되었던 것입니다. -역주

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기록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딤후 3:14-15)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어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고전 10:5-7) 아이들에게 놀기 전에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노는 것보다는 숙제가 먼저이고, 세상 음악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먼저이며 스포츠나 운동경기 등을 즐기기에 전에 교회가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게으름은 가난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아무도 공짜로 무엇을 거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전 8:11) 아이들에게 권위에 대한 도전은 심판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반역함과 법을 무시함은 대가를 치르게 되며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감옥과 지옥불로부터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 아이들에게 모든 거짓말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한

거짓말이나 작은 거짓말, 흔히 하는 거짓말,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짓말, 속이는 것 등 모든 진실하지 않은 말은 책망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champion)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육 큐빗 한 뼘이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 하는 투사가 올라와 똑 같은 말들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그 칼집에서 그것을 빼내어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하므로”(삼상 17:4, 23, 51) 성경에 나온 유일한 챔피언(champion)은 골리앗입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승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기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아이들에게 죄를 허용하거나 사회의 문화나 패션에 미혹 당하지 않은 채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 어디든 가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요 11:35)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돌봐 주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법은 아이들 각각의 인격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삶의 핵심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1) 아이들이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명예를 기꺼이 지는 자들의 인생은 훨씬 덜 복잡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창 3:12-13)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과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네가 보았노라.”(전 10:7) 아이들에게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번영할 때가 많으며, 의로운 자가 고난 받을 때도 흔하고 선한 행위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갈 4:1)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적당한 시기에 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떠한 이익이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빌 2:21, 4) 아이들에게 세상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환상적이라고 생각해 주지 않으며 그들에게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보다 젊은 자매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맑은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정숙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을 보살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선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습니다.

형제님들은 자신보다 젊은 형제들에게 맑은 정신을 갖도록 가르치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본이 보이는 삶을 살면 가장 최악의 원수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지어내기 전에는 여러분에 대해 나쁘게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서서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분 앞에 서서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롬 14:11-12). 그러므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구원할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아이들의 몫입니다.



제13장 열정과 애정

우리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설교할 때면 종종 두세 명의 자매님들이 와서 내용의 80% 이상이 자매들에 대한 것이라고 “항의” 합니다. 어떤 때에는 두세 명의 형제님들이 와서 “왜 항상 형제들에 대한 설교만 하느냐”고 저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 설교하면 왜 자기를 겨냥해서 설교하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정(passion)과 애정(affection)의 차이에 대해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결혼하게 되지만 바로 그 열정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애정은 혼인 관계를 평생 유지시켜 줍니다. 열정과 애정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열정은 외부의 인상이나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시각과 청각과 촉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열정은 육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육신의 외부 자극에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자의 외모를 보고 반하는 것은 열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제력이나 경력이나 학벌이나 소유한 자동차 등을 보고 반하는 것도 열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듯 열정은 내면이 아닌 외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생각이나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기쁨이나 희망이나 사랑이나 미움 등으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수난(passion)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행 1:3) 여기서 “수난(passion)”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육체로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신음 등을 의미합니다.¹⁰

성경은 열정적인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오직 열정 가운데서만 사는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과 야고보서 5장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 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passions)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행 14:7-15)

본문에 나온 청중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곧바로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열정을 갖게 된 이유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열정은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의 기적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잘못된 종교적

¹⁰ 영어 단어 “passion”은 “열정”이라는 의미와 “수난”이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육신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성정”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행 14:15).-역주

행위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들과 손으로 만지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과 바나바가 그들과 똑같은 “성정(passion)”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바울도 육신에 있어서는 그들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보거나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몰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수갑을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가 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열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느끼는 것을 근거로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가 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정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보기에 그렇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항상 열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한 것은 복된 일이지만 열정만으로는 바람직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오직 열정의 지배만 받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passions)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

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약 5:17)

저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알의 거짓 대언자들을 제거하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거짓 대언자들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을 조롱했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열정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조롱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혹은 바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들을 조롱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완전히 주관하실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조롱한 것은 그의 열정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자신의 신을, 자해하면 서까지 부르는 바알의 대언자들을 보고 흥분과 분노와 열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열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행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죽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세벨로부터 온 이메일을 확인하고는 큰 충격을 받고 바로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간구입니다. 훌륭한 대언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담대하게 적들을 물리친 전사였던 엘리야가 열정의 지배를 받으니 겁쟁이처럼 비겁하게 벌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열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기도로 엄청난 일을 이뤘습니다(약 5:17-18). 많은 사람들이 열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정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열정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천 년 전에, 특히 구약성경은 그보다 더 오래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시대가 타락했다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상은 지금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해당됩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우리 시대와 완전히 같았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악을 행합니다. 죄를 짓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때는 말을 타고 죄를 지으러 갔다면 지금은 차를 타고 죄를 지으러 가는 것뿐입니다. 잠언 7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그가 그녀의 길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갔는데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노라.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았는데”(잠 7:6-10) 잠언 7장의 말씀은 데이토나 해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올란드 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도시가 세워진 이래로 모든 거리의 일몰 후의 풍경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잠 7:11) 이 여자는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여자와 정반대의 여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장식한 여자वाद도 정반대입니다(벧전 3:4).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와 정반대입니다.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을 돌보는 여자와 정반대입니다. 잠언 7장의 여자는 보기에 좋은(예쁜) 여자일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게 이 여자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녀는 희철한 돌무덤과 같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부패한 시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며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이에서 숨어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에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게 화평 헌물들이 있으며 이 날 내가 내 서원을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12-15절) 마치 TV광고처럼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예전에 인간을 속였던 바로 그 방법으로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수놓은 융단 덮개와 조각품과 이 집트의 고운 아마포로 내 침상을 장식하고 몰약과 알로에와 육계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16-18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의 아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차꼬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21-22절)

젊은 사람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다 그의 열정을 잡아끌 무언가를 보

게 됩니다. 그의 열정을 잡아 끌 무언가를 듣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영적 지각도 없이 열정의 지배를 받아 죄에게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님들, 또 결혼하신 형제님들, 죄로 끌어들여려는 여자의 유혹을 원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열정의 지배를 받기만 한다면 짐승조차 꺼리는 일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는 동물적인 본능과 열정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욥기 31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라?”**(욥 31:1) 욥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집에서 나오면 젊은 여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혀 교제를 나누지 않고 영적인 것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 여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도 그러한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성정을 지니고 동일한 열정을 소유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눈이 무엇을 보거나 귀가 무엇을 듣거나 몸이 무엇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고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느낀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기로 한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유혹할 때 한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열정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열정 이외에 영적인 성품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애정(affectio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이란 마음이 특정한 것을 향한 상태입니다. 열정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현재의 일시적인 관심이라면, 애정은 현재 그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향해 갖는 영구적인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정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열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애정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애정은 여러분의 혼의 닻이며 여러분의 존재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애정으로 인해 여러 도시에 있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애정은 여러분이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함께 있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애정은 아무런 형상도 없고 우상도 없고 성상도 없고 성화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애정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제시할 때 항상 부정적인 것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보십시오.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여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롬 1:31)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성의 애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3도 보겠습니다.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우리는 본성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욕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느니 죽는 편이 낫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옥에 가면 그 어느 때보다 살고자 합니다.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또 누구나 본성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가족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사랑합니다. 이것은 본성에 속한 감정입니다. 본성에 속한 또 다른 감정은 이성을 보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나누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열정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한 것은(롬 3:11)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롬 1:21) 말씀 또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라면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주로 열정에 속한 것들, 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관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그 애정을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애정이 아닌 열정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정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가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더 편하게 다니고 자신들을 대우해 주고 섬겨줄 교회를 찾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애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애정을 마음속에 두고 진리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역대기상 29장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affection) 내 소유의 재물 곧 금과 은 중에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드렸노니**”(대상 29:3)¹¹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시면 합당한 애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향해 합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외적인 요소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자체로 교회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애정을 세워야 하는 일입니다 (set affection to the house of God). 교회야말로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혼을 위한 교육을 받는 유일한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향해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inward affection)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고후 7:15)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적 애정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서는 죄를 짓고 타락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순종하지 않고 아무런 선한 일을 하

¹¹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가 영어 킹제임스성경에는 “because I have set my affection to the house of my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역주

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이 영적인 가족이며 형제이고 자매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affection)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골 3:1)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집 안에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집에 애정(애착)을 두지는 마십시오. 자동차나 옷이나 땅이나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에 애정을 두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애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 받기도 하고 응답 받지 못하기도 하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예수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애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골목에서 여자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죄로 유혹할 때 어떻게 뿌리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좌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마귀에게 끌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짐승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3:5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무절제한 애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져야 하지만 무절제한 애정은 버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되 하나

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빌 2:12)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밖으로 드러날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안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주신 합당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이 열정이 아닌 애정을 따라 산다면 아내가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아내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열정이 아닌 애정을 따라 산다면 남편에게 하는 모든 말과 남편에 대한 모든 말은 사랑을 담은 말이 될 것입니다. 열정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만 애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반응과 태도를 보입니다. 애정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신실한 남편이고 아내이며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성도이고 교회 회원입니다. 왜냐하면 애정은 주님께 받아 사랑의 속에 있으며 따라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면을 지배하는 것은 내면입니다. 여러분은 애정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히 11:8)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상숭배 하는 땅에서 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는 아직 약속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살던 곳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본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은 그가 보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은 그가 느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도시에서 거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난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13-16절)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늘나라와 그곳에 계신 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친구였으며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는 자신의 길로 갔으며 인생을 영망으로 만들었습니다.¹² 그가 애정이 아

¹²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예가 바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일과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인 일일 것입니다.-역주

닌 열정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가 애정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일을 행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벧전 1:6-8)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게 바로 애정입니다. 시험과 단련은 보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정입니다. 이러한 애정이 있기에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애정이 열정을 완전히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애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열정으로 인해 결혼할 수는 있겠지만 결혼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애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침례도 받고 몇 주간 성경공부나 예배에도 참여하지만 이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애정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정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종교를 바꾸고 애인을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가 기쁨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꾸준히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구원받고 나서 자신들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애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을 때도 있고 빨리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느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현재의 일시적인 관심이라면, 애정은 현재 그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향해 갖는 영구적인 관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성의 애정이 없습니다(롬 1:31, 딤후 3:3, 고후 7:15).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그 애정을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애정을 마음속에 두고 진리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대상 29:3).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시면 합당한 애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집 안에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집에 애정(애착)을 두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애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골 3:1,5, 빌 2:12).

형제님들이 열정이 아닌 애정을 따라 산다면 아내가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아내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열정이 아닌 애정을 따라 산다면 남편에게 하는 모든 말과 남편에 대한 모든 말은 사랑을 담은 말이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게 바로 애정입니다(벧전 1:6-8). 나의 애정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14장 실망스런 일을 다루는 방법

우리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망스런 일을 어떻게 다루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망스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다. 모든 남자들도 결혼하기 전에 상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보고 아내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면 실망할 일들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망스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실망스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실망스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그 문제에 머물러 있고 실망 가운데 있으면서 남편이나 아내와 다툴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문제를 통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훈을 배우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를 말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통해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일에서 교훈을 배워 다음에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면 더욱 성숙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

에 도달하려 함이라.”(빌 3:8-11)

계속해서 본문을 더 읽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방금 읽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가정생활을 서로 따로 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운 원칙과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갈 때 세운 원칙이 서로 다르다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과 교회에서는 간증을 세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운 삶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 순위에 와야 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들과 고난이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직장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다가도 집에만 오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비난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참아주고 섬겨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장소는 가정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뉘따라가노라.”(12절)

우리는 교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염두에 두며 서로를 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성숙한 형제라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갈 뿐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던 사실인데 집에 오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집에 와서는 왜 자신의 남편이 완벽하지 않은지, 왜 자신의 아내가 완벽하지 않은지 의아해합니다. 왜 남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지 못했는지, 왜 아내가 도달하지 못했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의 아내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은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아직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을 행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을 할 때 놀라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풋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13-14절)

빌립보서 3장은 매우 흥미로운 장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

있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5-6절)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13절에서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린다”고 한 것은 기억에서 과거를 지워버린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해서 과거도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7-8절)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여긴다(count)”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계속 붙들고 있지 못할 만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배경과 자신이 받은 훈련과 행한 일들을 계속 붙들고 있지 못할 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형제님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가정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그 일을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붙들고 있지 못한 만한 것으로 여길 수는 있습니다. 자매님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붙들 만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계속해서 그 일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대화를 할 때마다 그 일을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정말 끔찍한 일이라면 왜 계속 그 일을 생각합니까? 물론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많은 일이 생기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 붙들 만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3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13절)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놓아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붙잡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끔찍한 일은 내려놓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갈 인생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은 다시 되돌리거나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남겨 놓을 수는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일이었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그 일은 뒤에 남겨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승리가 미래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힘을 과거의 일에 대해 논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일은 뒤에 남겨두고 선한 목표와 선한 표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 있는 그 복된 목표를 향해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날로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날로부터, 여러분은 여러

분의 구원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피 값을 치르신 분을 실망시켜 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못된 모든 일들은 뒤에 남겨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과거의 잘못에 계속 매달려 있기보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것을 보시면 저를 쫓아내 버리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자고 초청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먼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와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루에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망치고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육신과 교제를 나누면 육신은 여러분을 저주할 것이고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로 옷 입혀 주시며 살진 송아지를 잡고 즐겁게 영적인 잔치를 벌이기 원하십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눈물을 흘리셨고 충분히 슬퍼하셨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며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던 그 아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는 끔찍한 과거를 상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과거에 죄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끔찍하고 추한 것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 놓은 후에 뒤로 하고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 주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실 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꾀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다투고 싸우는 가정 생활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 생활을 원한다고 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싸울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온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면 행복한 가정 생활이 아닌 싸움과 다툼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굶주림과 좋지 못한 일들이 있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뒤로 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쫓아가야 할 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슬픔과 분노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배교를 하거나 세상으로 가버린 채

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모든 과거는 뒤에 남겨두고 주님을 섬기며 미래를 열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데마가 왜 세상으로 가버린지 아십니까? 그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왜 교회를 망치는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 앞에서 바르게 되기를 원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한 채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날 밤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주님의 양들을 먹었던 것입니다(요 21:17). 그는 과거는 모두 뒤로 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기 원했고 결국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이 원하면 과거를 뒤에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이 원하면 죄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결혼 생활을 망치는 그 무엇이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먹고 즐기고 세상 친구들을 사귀고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바른 길에서 바른 방향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넘어지더라도 바른 길 위에서 바른 방향으

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향해 나아가면 잘되든 못되든 우리는 죄의 길 위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길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방향의 길을 가다 넘어지느냐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침례교인들이 은사주의자들처럼 살아갑니다.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남편을 가르치려 들고 교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코 현숙한 여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사람은 입으로 하는 말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보다 나은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원한다면 남편이나 아내와 보다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자신의 힘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나오지 못한 것일까요? 대부분 늦잠을 자거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회오리바람으로 데려와서 억지로 교회에 데려다 놓지는 않으십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내는 아니지만 결국 어떻게든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자매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원하셔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면서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힘과 의지를 내어드리기 전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원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보다 나은 가정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자신도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피운 아내를 다시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만나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나는 여자도 바람을 피우는 여자입니다. 자신이 현재 바람을 피우는 여자는 사랑할 수 있으면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가 바람을 피운 여자는 다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람을 피우는 일이 작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륜은 살인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죄를 지은 아내나 남편도 원하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더 큰 죄도 수백만 번 용서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한 번 더 용서하시는 게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큼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실은 용서하기 싫은 것뿐입니다. 만일 자신 안에 계시는 주님께 내어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과거에 수천만 번 끔찍한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분이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불행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같은 일을 당했을 때에는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용하며 보여준 그 구절을 통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들을 뒤로 남겨 두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받을 축복과 기쁨을 생각하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뒤를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0:15-17)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든지 간에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며 기쁨과 행복 가운데 그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

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끝내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모두 뒤에 두고 앞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실 관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영원히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얼마나 망쳐놓았는지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가 축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복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내나 남편과 영원히 복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왜 다시 불행했던 과거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왜 다시 슬픔과 분노를 일으켰던 그 일을 끄집어 내니까? 그 일은 그대로 남겨 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와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불행했던 일들을 뒤로 하고 이러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했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 후회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던 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잘못했던 일을 그만 두어야 이득이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8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한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을 좀 낮게 만들어 배설물에서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에서는 생활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옷장 속에 보관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쓰레기를 가리키며 아내나 남편에게 “여보 이것 좀 봐요. 당신이 어제 버린 쓰레기가 아직도 여기 있어요.”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계속 옷장 속에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는 내다 버려야 합니다. “여보, 쓰레기는 이제 밖에다가 버리지.” “아뇨, 난 이 쓰레기를 계속 옷장에 두며 당신이 이 쓰레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집에서는 생활쓰레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쓰레기를 계속해서 집안에 두지 않고 쓰레기장에 가지고 가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앨범에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앨범을 보면서 “이것은 예전에 버린 쓰레기였지.”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쓰레기를 다시 배출할 수 있을까? 애들아, 이것 좀 봐라. 이걸 우리가 예전에 버린 쓰레기인데 이렇게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는 아

직 다시 나오지 않았단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쓰레기를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남편이나 아내와 다툰 적이 있고 논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리석은 짓을 한 적이 있고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거를 계속 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쓰레기장에 던져 버려야 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우리들 중에는 쓰레기를 금고에 넣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며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봐요, 당신이 지난 번에 버린 쓰레기예요. 냄새가 보통이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보관해 두었어요.”

저는 쓰레기라고 불렀지만 성경은 배설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¹³ 똥을 계속 보관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내려 보내야 합니다. 정화조에서 다시 똥을 퍼내지 마십시오. 쓰레기장에서 버린 쓰레기를 다시 찾아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배설물을 내려 보내시고 우리의 쓰레기를 던져 버리실 겁니다. 우리도 남편과 아내의 잘못을 이렇게 용서해 주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 드리면 우리가 차마 하지 못한 용서를 그분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을 우리 가족에게 그대로 해 줍시다. 쓰레기를 다시 꼬집어 내지 말고 버립시다. 이미 지나간 일들은 뒤로 남겨두고,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꺾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¹³ 우리말 성경에는 “배설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dung”, 즉 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주

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만일 자신 안에 계시는 주님께 내어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과거에 수천만 번 끔찍한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한번 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히 10:15-17).

빌립보서 3:8은 배설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옷장 속에 보관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남편과 아내의 잘못을 이렇게 용서해 주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 드리면 우리가 차마 하지 못한 용서를 그분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을 우리 가족에게 그대로 해 줍시다.



제15장 혀

우리는 오늘 혀라는 간교한 작은 지체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2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모두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과거에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족하게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능히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속한 그 어떤 지체보다도 혀를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손이나 발이나 귀나 눈보다 혀를 통제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성경은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약 3:3-4)

사람보다 힘이 세고 강한 말도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하는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과 결혼과 인간관계도 작은 혀 하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고 내뱉은 몇 마디 말로 인해서 파산하거나 좌초될 수 있고 반대로 복을 가져오거나 존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혀는 선한 일을 이룰 수도 있고 악한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혀가 “작은 지체로되 큰 일들을 자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혀로 큰 일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는 큰 인물이 아닐지 몰라도 혀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도시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로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성경은 혀가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의 세계(a world of iniquity)”**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씨월드(sea world)”가 있고 “디즈니 월드”도 있고 “사파리 월드”도 있고 “롤러스케이트 월드”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입 안에는 “불법 월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을 보면 여러분이 손으로 짓는 죄보다 혀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짓는 죄보다 말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절의 뒷부분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것은 성경에 나온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혀

의 해악에 대해 말씀하시며 지옥을 언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혀로 짓는 죄만으로도 지옥에 가게 충분합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한 무기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7절) 야고보서는 A.D. 40 년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길들여 왔다고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커스에서 동물을 길들여 공연을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동물을 길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물들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창 1:28)

이처럼 사람들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모든 짐승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사자도 길들이고 호랑이도 길들이고 새도 길들이는데 혀를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맹수를 길들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혀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두 명의 문지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입술과 이빨입니다. 혀는 입술과 이빨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혀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때문에 이빨과 입술로 닫을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8절) 성경은 **“아무 사람도(no man)”**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

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8절)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혀는 여러분에게는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혀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독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음 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9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것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동일한 혀로 그렇게 합니다. 혀는 참으로 위험한 물건입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서는 아니 되느니라.”** 예배를 마치는 찬송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는 내 앞으로 끼어드는 운전자를 향해 저주를 합니다. 같은 혀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길바닥 전세 냈나, 내 길 막지 말고 빨리 비켜!” 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혀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지체입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잔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11-13절)

이곳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남편들이 자신

의 아내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한다는 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상처를 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아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범고래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범고래입니다. 곰도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여전히 곰입니다. 사자도 아무리 많은 훈련을 시켜도 사자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자라고 방심하면서 옆에 있다가는 언제 몰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부로 살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혀는 통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혀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말을 내뱉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혀를 통제하지 못해서, 육신적이 되어서, 본능에 따라 혀를 놀려서, 교회 한 가운데서 “헬 파이어(지옥 불)”같은 미사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맙니다. 그렇게 말로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하다가 교회 전체가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범고래는 범고래의 본성대로 행하고 사자는 사자의 본성대로 행하고 방울뱀은 방울뱀의 본성대로 행합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혀도 거듭나지 못한 본성대로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혀를 통제해야 합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오늘 집에 가서 두 종류의 말 중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은 집에 가서 두 종류의 말 중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은 집에 가서 두 종류의 말 중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두 종류의 말 중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잠언 12장을 보겠습니다.

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잠 12:18)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이빨 안에 있는 그 작은 지체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일시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평생에 걸쳐 씻을 수 없고 회복되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주는 말도 있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상처도 있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입 안에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의 입 안에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줄 수 있는 약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복을 주는 데 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혀를 의로운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불의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전에는 불의한 일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워주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혀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칼처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약처럼 사용하시겠습니까?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

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 왕이나 재판관이나 독재자는 혀의 권능으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단 한 마디의 말로 수만 명을 죽인 통치자도 있었습니다. 죄수나 한 가족이 누군가의 혀를 통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망과 생명이 갈린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왕이나 독재자의 혀만 사람들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와 다투고 저주하고 욕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젓값을 모두 갚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듣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복음과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로 가족이 더 친밀해지고 한 마음이 되고 굳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님들, 저는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잠 31:10-11)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현숙한 아내를 맞았다면 그녀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사람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은 루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 잠언 1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청하는 말을 사 용하나 부자는 거칠게 대답하느니라.**”(잠 18:23) 여러분에게 현숙한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칠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만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라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보석을 소중하게 다루듯이 현숙한 여인에게도 친절과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제 자매님들 차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맞기 원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현숙한 여인을 원하십니다. 다시 잠언 31장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잠 31:26) 정숙하다는 것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 숙한 여인은 정숙하지만 입을 열어 지혜롭고 친절한 말을 합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이 바람을 피우면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출 20:14). 여러분이 남편을 살해하면 “살인하지 말라” 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출 20:13).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남편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남편을 욕 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남편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친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고 방해만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절한 말, 바른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것으 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과하지 않는 것보다 사과하는 게 낫지만 사과

한다고 해서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야생의 사자나 맹수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처럼 혀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맹수보다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짐승을 다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나 관계를 악화시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형제님들,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엡 4:15)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과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서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비방을 합니다. 어느 집에 속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집에 속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집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다.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온갖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가득 찬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어느 집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속한 부부가 더욱 견고한 믿음의 부부가 되고 어느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쓰레기 같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쓰레기 같은 말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말들과 비방과 소리 지르는 것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것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으로 하는 말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채우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채우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고전 1:10)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모든 가정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모든 가정이 이렇게 연합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분쟁이 없게 하려면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말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트집잡고 정죄하고 말꼬리잡고 논쟁하면서 분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혀를 통제하고 서로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선하고 복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나 교회에 분열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낮선 사람에게는 전혀 하지 않는 거친 말들을 아내나 남편에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낮선 사람에게는 절대 소리치지 않으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소리 지르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장에서는 막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와 인생이 혀로 인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혀를 악하지 않게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혀를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출 20:14).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남편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엡 4:15).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엡 4:31).

교회와 가정에서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혀를 통제하고 바른 것을 선하게 말해야 합니다(고전 1:10).

혀는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와 인생이 혀로 인해 바뀌기도 합니다. 혀를 악하지 않게 선하게 사용합시다. 혀를 바르게 사용합시다(시 19:14). 아멘.



제16장 더러운 세상 속에서 정숙함

우리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와의 관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면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지 못한 관계라면 다른 사람들과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정숙함을 유지하는가입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함을 보고 괴로워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 년 전에 살던 사람이 부활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본다면 발전한 게 아니라 타락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순수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으시고 그저 거룩하고 깨끗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접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엡 5:25-30)

2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셔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내면의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26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옛 생활과 옛 방식과 이 세상의 죄악된 모든 것로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구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씻겨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더러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을 때의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실 때 우리는 순결하고 순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결하고 순수하게 살고 걷고 그러한 삶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여자와 결혼했을 때 그 여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여자가 되었고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 여자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한 순간부터 평생 한 사람에게만 헌신해야 하며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헌신하고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레스터 롤로프 형제는 가정에 대해 설교하면서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주문한 웨딩드레스를 찾으러 상점으로 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니 자신에게 꼭 맞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 당일 이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차려 입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잘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면사포도 쓰고 웨딩드레스를 완벽하게 차려 입었습니다. 이 여자는 매우 아름답게 보이고 흠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친구 중 하나가 아직 식이 시작되기까지 3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 나가서 축구를 하자고 합니다. 신부는 친구들과 웨딩드레스를 입고 축구를 하러 갑니다. 이제 식이 시작되어 음악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신부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는 엉망이 되었고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운 게 묻었고 찢어진 곳도 생겼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신랑이 결혼식을 취소해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레스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결혼식이 취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혼식은 진행되겠지만 신부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웨딩드레스를 입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하객들은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기대했다가 진흙과 먼지가 잔뜩 묻은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보고 실망할 것입니다. “신부가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말하는 대신 “대체 웨

딩드레스를 입고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하며 수군거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쫓아내 버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웨딩드레스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신부와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를 얻으셨는가 보라!”고 말하는 대신 “신부가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드레스가 저 꼴이 되었을까?” 라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씻김 받은 그대로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을 때의 깨끗함과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딤후 6:13-15)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고백과 선한 간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간증에 흠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을 완전히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

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온전히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흠이 없이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삶은 우리가 증언하는 진리의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면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삶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사실이라고 강하게 지지해 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 9:14-15)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전혀 흠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는 어떠한 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시는 중에도 동일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천년 전에 인간의 몸 안에

계실 때 죄를 이기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시면서도 죄를 이길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데려가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하고 주님의 성령에 통제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벧후 3:13-14)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이 다 타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떡해야겠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어울려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하는 진리가 아무런 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깨끗한 삶을 살고 복음

을 전하면서 20년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해도 오늘날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면 그 동안 선하게 살았던 것은 모두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단 하나의 흠과 단 하나의 점과 단 하나의 죄로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성경에 거듭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점과 단 하나의 흠과 단 하나의 죄가 수십 년 동안 쌓은 모든 간증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죄로 우리의 모든 간증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제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은 짓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남자나 여자를 보면 그들은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우신 분이시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소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않는다면 이러한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면 그 말은 거짓말인 것처럼 아무리 주님이 최고라고 말해도 이 세상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구절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히 13:4a) 성경은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혼이 존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남녀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동안 서로에게 헌신하고 순결을 지킬 것을 맹세하며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결혼이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고 그 서약대로 사는 게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거나 깨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존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잡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히 13:4b)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한 침대에 눕는다면 모든 것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한 것도 사랑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더러움입니다. 그러한 짓은 배우자의 몸과 혼과 영과 인격을 더럽히는 짓입니다. 그러한 짓에는 어떠한 존귀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히 13:4c) 이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혼 밖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음행과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성경은 그것을 음행과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결혼 밖의 모든 성관계는 서로를 더럽히는 짓이고 사회를 더럽히고 짓이고 지구를 더럽히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음행 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 아닌

존귀한 남편과 존귀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간증을 망친다면 그것은 단지 저의 간증만 망친 게 아니라 우리의 간증을 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간증은 단지 한 사람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간증을 망친다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비난을 당하고 간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간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도 간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간증도 그 사람 개인만의 간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빌 4:8)

여러분이 간음을 생각하기 전에는 결코 간음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행을 생각하기 전에는 결코 음행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죄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기 전에는 결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간판을 보게 됩니다. 간판을 한번 보면서 가는 것과 그 간판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는 것과 그것을 생각하는 것과는 서로 별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여러분의 손과 발과 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전혀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순수한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르노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묻습니다. 문제는 포르노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보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마음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마음이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마음을 망쳐버립니다. 결혼하면 그만 볼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속에서 웃고 있는 여자는 맑은 정신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망쳐버릴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도 순수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욕기 3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라?”(욕 31:1)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것은 항상 통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생각하는 것은 항상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결함을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방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 맑은 것들을 고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것이 순수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보는 것은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애 3:51) 이것은 욕기 31:1처럼 죄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눈과 마음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 사이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른 곳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른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바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자해는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로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자해합니다.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시선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죄를 짓는 데는 마귀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상관없이 우리의 육신만으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여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여자는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죄를 짓도록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관계는 오직 결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모든 남녀관계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마음을 뒤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마음에 접근하려 할 때는 순수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딤후 2:22)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충을 겨눴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피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이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을 피할 것입니다. 미친 개가 물려고 할 때 피할 수 있다면 피할 것입니다. 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돌진해 올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나는 저 여자를 원해”, “나는 저 남자를 원해”, “나는 그것을 볼 거야” 라고 말할 때, 미친 개나 자동차를 피하듯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위험은 피하면서 영의 위험은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미친 개나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듯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충을 들고 온다면 피해야 합니다. 칼을 들고 온다면 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려고 오면 피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자신을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바른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약 3:17)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순수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존귀한 것입니다. 아내가 아니라면 그 어떤 여자에게도 손끝 하나 대지 마십시오. 욕처럼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으십시오. 젊음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른 분으로부터 바른 조언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조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구원받지 않은 이웃이나 잡지에 나온 말들은 여러분을 순결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순결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붙드십시오. 그것만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순수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정욕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들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기록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베후 3:1-2)

여러분이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순결함에 대한 설교를 계속 거듭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주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설교도 들었고 성경 구절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밤 잘못된 곳에 있을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일 이 세상이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설교자도 죄를 대적하는 설교를 그만둬도 됩니다. 사람들이 죄로 유혹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변명하는 것을 멈춘다면 이런 설교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가능한 자주 죄를 짓지 말라는 이런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 들은 것을 평생 실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른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선포하는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요일 3:1-3)

이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려는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편이 잠시 후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간음을 포기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가 자신을 순결하게 하기 위한 좋은 동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는 데 매우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분이 어느 순간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오시는 것을 안다면 방탕한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께서는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 5:25-30).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결하고 순수하게 살고 걷고 그러한 삶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여자와 결혼했을 때 그 여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여자가 되었고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 여자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한 순간부터 평생 한 사람에게만 헌신해야 하며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이 세상에서 선한 간증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딤후 6:13-15).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시는 중에도 동일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히 9:14-15).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벧후 3:13-14).

우리는 순수한 것들을 생각함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빌 4:8).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함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과 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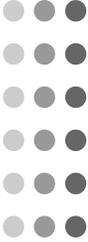
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욘 31:1). 또한 보는 것은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애 3:51).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 사이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른 곳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른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바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미친 개나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듯이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딤후 2:22).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함으로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약 3:17). 또한 순결함에 대한 설교를 거둬서, 반복해서 들음으로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벧후 3:1-2).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요일 3:1-3). 만일 여러분이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분이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한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평생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순결할 수 있다면 10분도 순결할 수 있고 하루도 순결하게 보낼 수 있고 평생 순결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17장 세 겹 줄

먼저 전도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움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들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전 4:9-11)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나 결혼해서 한 사람이 아닌 둘이 되는 게 좋은 이유도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와서는 세 겹 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모든 관계에는 제삼자가 존재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삼자가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삼자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것일 경우 이것은 선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삼자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삼자 때문에 어떤 부부들은 신혼 초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제삼자가 끼어들어서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제삼자가 누구냐에 따라 부부 사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삼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제삼자가 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 세 겹 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존재는 서로 긴밀하게 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남편과 경건한 아내가 서로 연합하면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면에 있어서 혼자인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서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 겹 줄을 이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세 개의 줄을 꼬아서 하나의 튼튼한 줄을 만들듯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의 튼튼한 세 겹 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관계를 완성해 줄 제삼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삼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 15:5) 여기서 “너희”라고 할 때 “ye”라고 하여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나”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서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더라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관계에는 결코 화평이 없습니다.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주님 없이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혼인생활이 온전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남편이나 아내가 되려고 시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없이 혼자 걸어가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혼자 걸어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최상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는 여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 여자는 남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할 당시에는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약속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

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제삼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무엇이 제삼자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가 제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삼자가 되지 않다면 이 5가지 중 하나가 제삼자가 될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mammon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눅 16:13) 여러분은 돈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기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돈이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라면 그것은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자리에 돈이 아닌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14절)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돈 모두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나라.”(15절)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돈을 섬기면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증하게 보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나 돈, 둘 중 하나를 더 높은 곳에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또 율법의 일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16-18절)

이것은 이상한 본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돈 얘기를 결혼 얘기로 연결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여기서 돈이 결혼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그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첫째 자리에 둔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이혼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반을 두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닌 돈에 있다면 돈이 사라져 버릴 때 여러분의 관계도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아닌 하나님이 관계의 기초라면 이혼이나 간음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닌 맘몬에 기초를 둔 관계는 간음이나 이혼이 뒤따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13-18은 하나의 단락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주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의 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13-18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이나 이혼문제로 관계를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돈이 결코 제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삼자가 되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과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때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의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창 2:21-24)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므로 수많은 결혼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다른 여자는 많은 경우에 남편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기 원하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의 어머니가 제삼자가 된다면 아내는 질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 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행 11:23) 성경은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shall cleave unto his wife)”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주께 붙어 있으라(would cleave unto the Lord)”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아내에게 굳게 붙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제삼자는 결코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아빠”도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와 연합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과 연합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와 연합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과 연합해야 합니다.

전에 어떤 부부가 싸우다가 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제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자매님, 자매님이 만든 음식이 형제님의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단지 입에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남편은 시택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와요. 그래서 매번 저 혼자 식사를 합니다.”

당연히 아내보다는 어머니가 더 음식을 잘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삼십십년 이상 음식을 해왔고 남편은 그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아내의 험담을 하거나 남편의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남편이나 아내의 욕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화가 났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주님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차라리 개를 사서 개에게 얘기하세요(물론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제삼자는 돈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제삼자는 어머니나 아버지

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제삼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빌 2:1-4)

어떤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진정한 기쁨도 없고 교제도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무 번을 결혼한다 해도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희생은 오직 상대방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것은 아직 자신이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소리 내서 읍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도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읍니다. 아기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리 피곤하고 잠이 쏟아져도 자신을 부인하고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줍니다. 아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무엇이든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도 기뻐합

니다. 참된 기쁨과 사랑은 희생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맺는 부부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삼자가 되셨을 때에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삼자는 결코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5장을 보겠습니다. **“낮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잠 5:3)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폭언을 하고 욕하고 거친 말을 할 때 밖에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여자가 남편에게 접근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그런즉 네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이 움직이므로 네가 능히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4-6절)

“그녀의 길들이 움직인다” 라고 한 것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여자가 여러분과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 그녀는 다른 남자라도 그럴 것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여러분과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 그는 다른 여자라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길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음행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신실함이 아닌 음행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네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7-8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낮선 여자를 끌어들이는 결과에 대해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존귀를 남들에게 주며 네 삶의 햇수를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염려하노라. 낮선 자들이 네 재물로 충만하게 되며 네가 수고한 것들이 낮선 자의 집에 있게 될까 염려하노라.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네 살과 네 몸이 소멸될 때에 네가 애곡하며 말**

하기를, 내가 어찌 혼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떨시하여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혼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 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노라.”(9-14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삼자로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게 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네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네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네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네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아들이야,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15-21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세 겹 줄을 이루는 제삼자는 하나님께서 되셔야 합니다. 만일 다른 여자가 제삼자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자매님들이 특히 잘 들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동산에서 남편과 아내는 다른 남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남자는 간교한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잠언 5장에 나오는 여자가 남자에게 했던 것과 같은 간교한 속임수로 여자를 속였습니다. 이 남자는 말로 여자를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들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선악과만은 금하셨습니다. 이브는 이미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녀가 얻게 될 것은 나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자신의 남편이 아

닌 다른 남자의 말을 신뢰함으로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간교한 남자는 여자가 하나님과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남편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결국 이브는 하나님이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 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나?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sorrow)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창 3:11-16)

어떤 사람들은 이브가 죄를 지어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이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남편의 권위 아래 있었을 때, 그녀에게는 고통(sorrow,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통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녀가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남자가 아닌 남편에게 열망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열망을 두어야 하고 하

중 하나가 제삼자가 될 것입니다.

제삼자가 될 수 있는 첫째는 돈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또 돈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눅 16:13-18).

제삼자가 될 수 있는 둘째는 부모입니다(창 2:21-24).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처럼(창 2:24)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행 11:23).

제삼자가 될 수 있는 셋째는 자기 자신입니다(빌 2:1-4). 어떤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진정한 기쁨도 없고 교제도 없습니다.

제삼자가 될 수 있는 넷째는 다른 여자입니다(잠 5:3-21).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삼자로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게 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삼자가 될 수 있는 다섯째는 다른 남자입니다(창 3:11-16). 여자는 하나님과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말을 신뢰함으로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 간교한 남자는 여자가 하나님과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남편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삼자가 함께 해서 세 겹 줄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삼자는 돈이나, 부모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삼자가 되셔야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사무엘 김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52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64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64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32	15000
30	창세기 1:1-3 강해(간극이론)	Jeffre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6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3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92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52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28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108	4000
43 합당한 섬김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56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8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6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1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Timothy Morton	64	2800
2 바람 아래서 뿌리고 구름 위에서 거둔다	이우진	128	5000
3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성경 공부	Paul E. Heaton	88	4000
4 성경을 찾아보라	이우진	80	3000
5 칼빈주의 비평	James W. Knox	96	4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19종과 소책자 34종 등 53종의 도서를 총 11만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한 권 당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

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2년 10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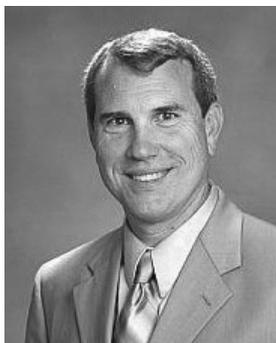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영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 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지은이 : James W. Knox



제임스 닉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달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닉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 옮긴이 : 이우진

- * 펜사콜라성경신학원
-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 前 월간 강단의거성 편집장
- * 前 펜사콜라성경신학원 강사
- * 現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편집장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강사